제목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광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어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불자들은 자비심과 효순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범망경〉

법회 안내

용천사 (02)642-207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칠성재일법회 매월 7일(음)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특별불교학생연합회 일 오전11시

호국 원광사 (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30분
사부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안동기도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불교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인천 연산정사 (032)873-10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1~3일)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고양 선봉암(0344)387-8445
일반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제주 한마음선원(064)21-466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거사림법회 매월 1·3주 목 오후7시
요전법회 매주 수 오전11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2·4주 일 오전10시30분

고성 옥천사(0556)72-01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낮12시
비타화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8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자동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센 항의'

6일 한통노조간부 연행…38단체 대책위 구성

공권력이 또다시 조계사에 난입, 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검찰과 경찰이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통노조간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교계는 범불교 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전국불교운동연합·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 총 38개 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6·6 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효림스님)'를 구성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때까지 천주교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종교성지에 공권력 난입과 관련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공개 확약 △ 구속한 한통노조원 즉각 석방, 노사간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 △공권력 투입 책임자 전원 파면 등에 대해 오는 12일 오후1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2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교계 인사 1천명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5일 오후 7시 현시국에 대한 대규모 시국법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도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노조측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아 회사, 정부간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는등 헌신적인 중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강한 회의를 느낀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노사 당자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도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로경찰서를 항의방문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고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조계사는 지난해 범종추의 총단개혁촉구시위와 4월10일 승려대회, 지하철노조원의 농성 당시 경찰침탈을 받은데 이어 네번째로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게됐다.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조계사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한통노조 간부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날 11일째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던 노조간부 7명이 연행됐고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던 진관스님이 부상을 당했다.

〈김중근 기자〉



◇ 지난 6일 오전8시 조계사에서 11일째 농성중이던 한국통신 노조간부 7명 전원이 전격 침투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구속됐다. (사진=김중근 기자)

불교정보 유통망 구축…종교계 최초

BBS 정보연구소 DB개발…8월 1일 개통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일반에 서비스하는 불교정보유통망이 생긴다.

불교방송 산하 불교정보연구소(소장 이정)는 한국통신 통신망(HINET-P)에 독자적인 정보유통망 '(가칭)한국불교정보'를 구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정보제공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불교정보연구소가, 추진중인 '한국불교정보'는 불교방송이 지난 해 한국통신으로부터 선정받은 '한국불교정보 DB개발사업'의 일환으로 PC 단말기를 통해 일반에 양질의 불교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연구소측은 자체 정보유통망 구축을 위해 대형컴퓨터(VAX-8800)와 고속프린트, 통신을 위한 모뎀장비 등을 도입하고 한국통신측과 선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불교정보가 제공하게될 정보는 불교정보연구소가 자체개발해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에서 서비스중인 〈불교계인명록〉〈한국사찰총람〉〈불교역사인물〉〈불교도서목록〉등의 DB이며 〈한국불교역사〉가 새로 제공된다. 〈관련기사 13면〉

이정 연구소장은 "기존의 불교정보서비스는 정보통신 회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보갱신이 6개월이나 걸리는 등 새로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자체 정보유통망을 구축하게 되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일반에 쉽고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정보연구소는 앞으로 〈한글대장경〉〈경전속의 인물〉등 불교 DB를 구축, 다가올 21세기의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가야산 골프장 절대 안된다"

조계종, 관련 부처 항의서한 강력 대응

법보종찰 해인총림(방장 혜암스님)이 가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해인골프장 건설을 극력 반대, 저지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전 불교계가 이에 동참하는 등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해인사주지 지관스님)는 지난 3일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가야개발이 운영하는 백운동국민호텔 앞에서 고령군 덕곡면 대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장건설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족성지 가야산에 골프장 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규탄대회에 들어갔다.

이날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조계종은 정부 관련부처 7군데로 항의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또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서명운동을 결의했고 대구지역 5개 교구본사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연대키로 결정, 6.27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야개발(사장 어상영)은 현재 해인사와 봉우리 한나를 사이에 둔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의 경관이 수려한 가야산 해발 5백미터 지역에 48만평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가야산골프장건설저지투쟁위원회가 문체부에 제출한 행정심판은 지난 2일 '재심' 판정이 났다.

조계종 총무부장에

법타스님 임명

공석중이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지난 3일부로 법타스님(광불협 상임부회장)이 임명됐다. 지난 65년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현재 불교시민단체협 상임공동대표, 경실련 지도위원 등을 맡고 있다.

목어

담배꽁초를 줍는 소년

중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길을 가다 엎드려 담배꽁초를 줍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걱정했다.

"당연히 착하다고 칭찬할 일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다 못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 세상에 잘 어울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자랑스러우면서도 세상이 하도 험해 착한 아들을 걱정해야 했던 그 어머니는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사회봉사가 학교성적에 크게 반영된다니까 곳곳에서 봉사와 선행을 적극 권할 것이기에.

학교성적을 위해 '억지춘향'으로 봉사에 임한다면 그 또한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익힌다면 서서히 봉사생활이 몸에 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소년소녀의 60%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기에 익힌 봉사정신은 어른이 된 다음까지 이어져 미국의 성인 절반이상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전체 고교생과 대학생의 30%가 각종 사회봉사에 나서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본지의 금주 '지상법석' 한구절을 되새겨본다.

"어릴 때부터 '천지만물이 나와 한몸'임을 가르친다면 잠재의식속에 사랑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쌓여 자기만을 위하는 혼탁한 세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교전산화 오늘과 내일 13면
부산판 특집 17~19면
금주 20면 발행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① 이태아 ⑥ 아우토반
② 아네모네 ⑦ 미스터킹
③ 론 ⑧ 아로스
④ 타겟 ⑨ 루이너스
⑤ 트리플 ⑩ 시그넘

■ 체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유하고 계신분
기타 - 주유소, 대형카인테리어, 백화점 등 문의 받습니다.
• 체인사업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장 이병우

■ ALT-X체인점
인천연수점 (032)812-9553
서울강남점 (02)556-4468
서울북부점 (02)9923640
서울구로점 (02)808-3441
의정부점 (0351)872-2192
안양점 (0343)53-9263.4
수원점 (0331)38-8280.1
대구서부점 (053)654-6204
대전서구점 (042)633-7071
전주점 (0652)74-0072
광주북구점 (062)524-4255
제주점 (064)58-2660.1

■ 사원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3. 전임 디자이너
(각항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장명창

Aqnam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329-7 67블럭 8로8호
TEL (032)816-9551~4 FAX (032)816-9545

인천연수점 (032)812-9553

사 설

진정한 위민정치란?

지난 6일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던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된 데 이어 7일 재차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한국통신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조간부들 중에서도 일부 불교신자들이 조계사에 들어와 보호를 요청하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은 5월27일의 일이다.

그동안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에 주력해온 경찰은 수차에 걸친 총무원 방문을 거쳐 6월6일 현충일 아침을 기해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기습적으로 진입하여 단식 중이던 노조간부들을 연행했다.

그동안 조계종의 관련 스님들은 품안으로 찾아온 노조간부들을 보호하는 한편 한국통신 경영진, 정보통신부, 그리고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을 연차적으로 만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모색해 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도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므로써 품안에 찾아온 노조간부들을 보호해 주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자타카〉라는 경전에는 가리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냥군의 추격을 받고 가리왕의 품속으로 피난온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내용이다. 殺身成仁이 무엇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으로 발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이 조계사로 피신하자 그들을 보호해 주며,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총무원스님들은 바로 보살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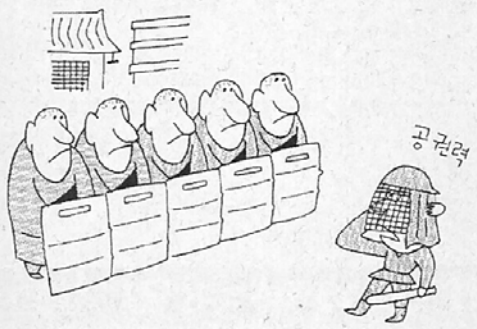
그러나 총무원의 중재 노력과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허락이나 진입 고지도 없이 신성한 도량에 경찰이 진입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고 스님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 섭섭함을 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법 앞의 평등'과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찰의 주장도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차제에 부언하자면 신성한 종교 영역이 특정 계층의 집단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장소나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행해지는 노조활동을 부정할 의도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복선이나 이기주의는 종교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선 '나라의 임금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 노인들을 양육하고 고독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만약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결과를 일곱 등분하여 행한 사람의 책임이 다섯이라면 임금의 책임은 둘이다'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위정자나 사회지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공업(共業) 중생이다. 따라서 사회의 일체 행위는 착함을 지향해야만 한다. 문제해결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사회의 틀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다. 이런 점에서 법을 지키는 시민정신이 성숙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위민정치가 무엇인가를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이다.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이렇게 해서라도…

열 린 마 당

조계사 공권력 투입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 한국통신 농성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한데 항의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지난6일 오후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계 승·재가단체 6·6 관련 성명서

조계종 총무원 평화적 중재가 진행중인 사회적 사건을 법집행이란 명분으로 침탈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공권력이 너무도 쉽게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재가불자연합 쟁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수배하고 종교계가 앞장서서 노사간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중에 노동자를 연행해 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대한 불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불교인권단체 성소라고 불리우는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무차별 공권력을 동원하여 침탈한 정부는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충일날 종교성지 공권력 난입에 대하여 공개사과해야 한다.

범불교도대책위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종교를 무시하는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파면, 구속노조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종교계에 대한 무마책의 일환으로 '사절단 파견' 운운하는 것은 종교계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이 있을 때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항의농성과 함께 매일 저녁 8시 조계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부천불교연합회 이번 공권력행사는 스스로 문민정부라 이름한 현정부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심각한 의문을 들게하는 행위다. 타종교인 시민과 연대해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나설 것이다.

각계 한마디

▲무공스님〈동화사 주지〉=끝까지 인내와 대화로써 해결했어야 할 일이며 신성시 되어야 할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종교계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법륜스님〈인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국가의 정보통신분야 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동원되어 아쉽다.

▲무원스님〈부산 문수암 주지〉=사부대중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으레 찾아오는 곳이 종교시설이다. 이번 사태는 분쟁당사자들간의 계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성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송희식〈변호사〉=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성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성역이 불필요하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사찰의 침해는 현정권의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법집행의 문제보다 종교와 성스러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행동은 대화에 의한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종교계의 뜻을 노골적으로 짓밟은 것이다. 정부는 불자와 천주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도 정부의 인식방법과 통치철학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이춘기〈부산교수불자회 회장〉=공권력 투입이 국가정책 수행상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특정 종교를 얕잡아 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이든 성역에 공권력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선례를 또 하나 추가할 뿐이다.

교계 중재 불구 물리적 해결 "유감"

▲이원섭〈시인〉=사찰과 성당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을 종교계가 앞장서서 밖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한통사태'를 접한 불교계는 화해를 주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다만 불자와 천주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도 정부의 인식방법과 통치철학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강한필〈불교방송 사장〉=신성한 사찰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스님들과 신부들이 중재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평화적이 아닌 물리력으로 노조원을 연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한승원〈소설가〉=조계사에 들어온 경찰들이 먼저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삼천배를 하지도 않고 농성하는 사람들을 연행해 갔다면 정말 가만히 있어선 안된다. 불교인의 힘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 단결의 힘이 필요하리라 본다.

시 론

당혹스러웠던 현충일 아침



심 익 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노사분규를 하나의 사회적 게임으로 이해할 경우, 게임의 내용과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국가에서는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매년 봄만 되면 우리에게도 노사분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정치 경제적 갈등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오랫동안 제도적 억제정책으로 잠재해 있던 노동운동이 지난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어려운 갈등문제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아쉬운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오늘의 소위 '문민정부'를 막론하고 노사분규를 풀어가는 방식이 여전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용자와 공정성을 주장하는 노동자라는 두개의 수레바퀴에 의해 이끌려 가는 한국노사관계에, 합법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부의 강경한 개입으로 금년 역시 대화보다는 물리적으로 분규가 해결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조의 간부가 불가피하게 불교성지인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것을 법질서 확립을 앞세워 강제연행까지 단행한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대응능력의 한계는 물론 종교의 기초도 이해 못하는 현정부의 통치철학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미래지향적 해결방법

금년 노동운동은 두가지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는 6월 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勞·使·政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정부의 규제에 순응해 오던 한국통신을 비롯한 거대한 공기업 노조들이 노사분규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불교와 천주교가 우연찮게 연계되었고, 이를 풀어가는 정부의 단세포적 대응으로 노사문제는 종교와 정부의 갈등관계로까지 비화되면서 선거를 앞둔 사회분위기를 경직시키고 말았다.

조기가 게양됐던 현충일 아침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노·사·정 3자와 종교간의 줄다리기는 일단 막을 내렸지만,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지향적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신의 무능력, 정부의 국가권력 지상주의, 노조의 선거시기쟁의 집중론 모두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정립을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제로 섬 게임' 아닌 화합

불교에서 강조하는 和의 논리야 말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처럼 노동운동이 경제적인 이유만을 강조했던 때와는 달리, 현대의 노동운동은 갈수록 정치지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논리에 입각한 노사분규의 접근방법은 더욱 중요하다.

불교적 和의 논리는 노사관계가 어느 한편의 이득이 다른 편의 손실로 나타난다는 소위 '제로 섬 게임'이 아니라 화합과 협상을 통하여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기본사상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 노사분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和의 핵심적 내용을 집약한 의상의 '一卽多 多卽一', 즉 둘이면서 둘이 아니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라는 대승적 사고는 바로 오늘날 한국 노사분규의 주체인 勞와 使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政이 함께 새겨보아야 할 가장 심오한 불교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라는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임을 이해한다면, 21세기를 앞두고 한국 노사관계 역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대전제를 의식했다면 한국통신 사태처럼 노·사·정 모두가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인바, 지금이라도 정부의 맹성과 노조의 슬기로운 행동을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 한국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대립일변도 보다는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불교적 공동체정신으로서의 和의 철학을 기본적인 토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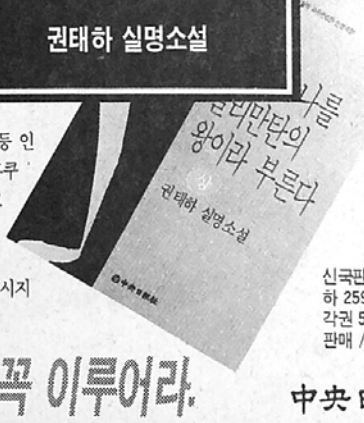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비·얼음·수증기로 끝없이 윤회



◇물은 자연과 신체의 생태계를 순환한다. 지구의 75%, 신체의 65%가 물로 되어 있고 천연수엔 5백만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 있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⑭

몸에선 피·오줌·눈물되어 신진대사 촉진

물의 순환

부처님은 자연의 물이 구성하는 생태공동체를 외수계(外水界)라고 하고 우리 자신의 신체의 물이 구성하는 생태공동체를 내수계(內水界)라고 구분하여 말씀하셨다.

"벗들이여, 무엇이 물의 세계인가? 물의 세계에는 내수계와 외수계가 있다. 벗들이여, 무엇이 내수계인가? 벗들이여, 내적이고 개체적인 것인데, 물이나 유동적인 것이며 취착된 것으로, 즉 담즙, 가래, 고름, 피,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 그 밖에 어떠한 것이라도 다른 내적이며 개체적인 것인데, 물이나 유동적인 것으로 취착된 것을, 벗들이여, 내수계라고 부른다. 이 내수계와 외수계를 보태어 물의 세계라고 한다."

물의 생태계는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와 신체의 생태계를 순환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 넓이의 75%가 호수·강·하천·해수(海水)로 되어있고, 우리 신체의 65%가 물로 되어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물은 자연의 물로부터 유래하고, 자연의 물은 이미 지적했듯이, 수억만겁을 두고 우리 자신의 신체를 순환한 물로, 그리고 적어도 한번은 우리 각자가 흘린 눈물이었던 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은 자연의 생태계에서 다른 모든 땅, 불, 바람, 생명의 공동체를 수반하면서 천류한다. 자연의 천연수에는 적어도 5백만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땅의 성분인 각종 미네랄이나 광물질을 위시해서, 바람의 성분인 산소나 탄산가스나 생명의 성분인 유기물질 등이 용해되어 있고, 불의 성분인 적절한 온도가 그들을 안정상태로 유지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도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는 1㏄당 일반세균 천마리 이하이지만, 천연수 속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으며, 미량의 유기물이라도 있으면 세균수는 1㏄당 수억마리 이상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 신체속의 물 가운데 예를 들어 1㏄의 침속에도 약 5억마리의 세균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은 외수계와 내수계를 순환하면서 조화롭게 다른 모든 생태계를 수반하면서 천류한다. 자연의 물속에서는 순수한 물인 증류수란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요소와 더불어 사는 물의 생태공동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 지구표면의 3/4은 수면이고 물의 총량은 14억㎦이며 지구표면이 평평하다면 3,000㎞의 수직으로 전지구를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물은 끝없이 순환하고 있다. 물의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강, 호수, 하천, 빙원의 물이다. 이 가운데 연간 증발과 강우 등으로 순환하는 물의 양은 육지의 담수량의 다섯배 가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은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로, 대기중에 증발되어, 기온이나 기압의 변화에 따라 기체의 물(수증기·안개)이나, 액체의 물(비·이슬)이나, 고체의 물(얼음·눈·우박)로 상태를 변화시켜 계곡 협곡 지류 호수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들며, 바닷물은 다시 증발되어 순환을 되풀이하며 천류한다.

또한 생물체내에 흡수되었을 때에는 다른 땅·불·바람 생명현상과 더불어 신진대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시 생체내를 순환하며 천류한다.



◇불교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을 진행하고 있는 이익선씨(KBS 기상캐스터)가 지난 13일 방송 중에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를 소개,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월간 '해인', '대중불교' 동참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 활발

월간 「해인」(발행인 일타스님)은 지난주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4천매를 「해인」지와 함께 발송, 각 가정 현관이나 대문에 부착케 했습니다. 월간 「대중불교」 등 교계 월간지들도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자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낱장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단체 △제주불교정토청년회(회장 김조현) △미주불교방송(이사장 정산) △백화도량(법사 김호성) △경수사포교원 불자의 집(대표 대연) △대한불교 달마회(회장 김경복)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 △자비의 집(대표 동광) △대승불자회(회장 이엽기) △은평구 수선사(주지 견진)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 △광천사(주지 성정) △(재)한국불교 태고원(이사장 이규범) △불교방송 육아회(회장 이현정) △불교문화센터(법사 신진욱) △중앙승가대 교직원 △선원사(주지 성원)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청오사(주지 무공) △한국방송공사 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 △삼천사 가족법회(회장 신장효) △사천왕사 밝은누리 청년회(회장 허무룡)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회장 김광덕) △직지사(원주 보륜) △경포 인월사 △경기 청명사 △강서구 의왕사 △동신기업 △한양예전 불교동아리 가연 △충남 천불암 △충남 흥국사 △경기도 용상사 △강원도 도솔사 △백골사(주지 창안) △경기 봉화사 △충북 영축사 △경기 육화정사 △삼척 삼산사 △천안 천불암

개인 △장화숙 △박명희 △정석규 △황찬종 △김진아 △김재권 △김진명 △이진우 △장문순 △박규열 △윤청옥 △김희정 △박영애 △김병효 △박기선 △김만복 △최광명행 △정용한 △박광호 △진점규 △조상훈 △김철완 △양병웅 △김형중 △박명희 △이춘구 △김희웅 △윤서영 △조경은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신행수첩



◇바다가 굽어보이는 절경의 위치에 자리한 낙산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이다.

'새문명 새인간' 됩시다
생명운동아카데미 강좌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단순히 수질, 대기, 폐기물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이며 생활양식의 문제이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가치관과 생활철학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기존의 반생명적인 생활양식으로부터 생명가치를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이란 슬로건으로 생명운동 아카데미를 연다.

'현대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환경교육원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강의와 토의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 (02)765-6324

온누리 넘칠 마음의 소리
여불련 연꽃합창단 모집

마음의 소리를 선율에 담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다. 그 마음의 참소리들을 한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오는 6월말까지 30세~63세 이하의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연꽃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부처님의 위없는 덕을 음성공양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여성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02)738-5586

행복의 밭 가꾸세요
간병인 교육생 모집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가꾸는 밭이 된다.' 범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불교간병인협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간병인활동 및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8기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산모의 신생아 간호법' '중풍 치매환자 간호법' '환자와 간병인의 대화법' '응급처치법' 등 총 21개 강좌가 개설된다. 간병을 통한 불교의 자리이타를 구현해 나갈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02)725-4490

한계령 넘어 관음상 친견
신행연 불교문화기행

녹음이 우거진 한계령을 넘어 여정에 지친 육신을 오색약수터에서 잠시 축이고 저멀리 수평선너머 불국정토를 굽어보는 해수 관음상 앞에서 다함께 하나되는 법열의 향취를 느껴보면 어떨까.

우리의 돌교문화속에 깃든 참뜻을 살피고 살아있는 정신을 함께 깨우치고자 하는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강원도 양양 낙산사·선림원지·설악산 한계사지·오색약수를 거치는 무박 2일의 불교문화기행을 오는 24, 25일 떠난다.

하이얀 파도가 시야를 적시며 풋풋한 초여름의 바다내음이 물씬 풍기는 관음도량 낙산사에서 그 옛날 의상대사가 친견했다는 관세음보살의 화현을 기다린다면. 기도 정진하면서 마음속 온갖 번뇌들을 일렁이는 파도속에 띄워보내자. (02)587-6613

배움의 보람 해방의 기쁨
무료한글학교 열어

배움으로 외로움과 번민을 말끔히 싸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흔히 몸 둘 곳은 있어도 마음 둘 곳은 없다고 말하곤 한다. 과연 스스로 외로워하고 힘겨워 번민하면서 살아가는게 인생일까?

자기의 번민과 기쁨을 배움으로 토해내 보자.

불교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 진주불교회관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문맹인이나, 배움의 기쁨을 느껴 보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한글학교를 개최한다. 배움으로 스스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해 보는 것도 햇빛 좋은 날 의미있는 일일듯 싶다. (0591)747-0108

흥겨운 굿거리 한마당
개금복지관 민요교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가득 담겨진 구수한 전통민요 및 흥겨운 어깨춤은 모든 시름을 잊게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각종 복지, 문화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오는 15일 복지관 강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민요교실을 개강, 흥겨운 한 때를 같이 한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여주는 이번 민요교실은 각 지방에서 구전되어오고 있는 아리랑, 타령 등의 민요를 굿거리, 세마치등 전통가락에 맞춰 신명나게 불러보게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술문화의 우수성을 마음껏 느껴보자. 민요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051)893-5034

"아픈 사람들 다 오세요 약사보살이 기다립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전문물리치료실 운영

육체의 건강은 정신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맑고 활기차다.

나이가 들어 허리,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것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을 약사보살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물리치료실이 개설됐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문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진료를 요하는 55세이상 남녀노인과 주민은 근육통, 관절염 등의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다. (02)817-8052

생활 속의 불교 ㉘

놓으면 살고 붙들면 죽는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빈 손 들고 이 세상에 나왔다. 빈 손으로 와서는 평생을 기울여 그 빈 손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산다.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쥐려고 애를 쓴다.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력이 일정한 게임법칙을 준수하는 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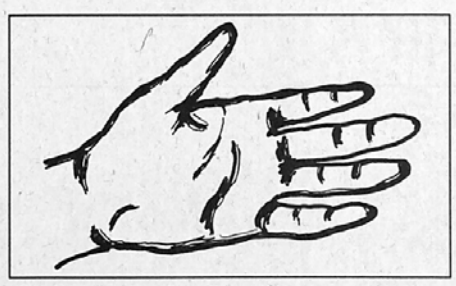
그러나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욕망이 지나쳐 권력을 향한 집념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명예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나의 삶은 그로부터 노예와 다름없게 된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돈·권력·명예가 어느 새 주인이 되어 내가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인간이 그 무엇의 쓰임새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이해, 대수롭지 않은 일들,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물건까지 나를 얽어매는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다. 가령 새 옷 한 벌 해 입었을 때 내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새 옷이 나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허다하다. 빈 손을 채워야만 살 수 있다는 관념이 쌓이고 쌓여 나를 주인 자리에서 하인 자리로 밀어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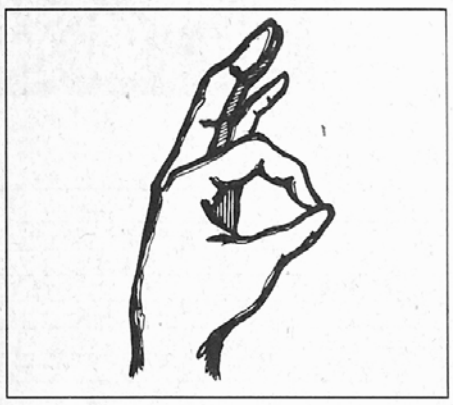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먹었으면 배설해야 한다. 먹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 이치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가졌으면 주어야 하고 쥐었으면 펴야 한다.

갖는 도리만을 좇아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혹 평생을 쥐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 때는 싫어도 다 놓고 빈 손으로 간다. 올 때 그러했듯이 갈 때도 빈 손이다. 고로 주는 도리를 좇아 사는 게 주인된 삶이다. 갖는 도리는 노예의 길이요, 주는 도리는 주인의 길이다.



갈 때 어차피 빈 손일 수밖에 없으니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는 일시적인 관리자이다. 그러기에 불가에서는 본래 나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친다.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한다. 대장부다운 자유로운 삶을 엮어가라고 한다.



이 세상에 빈 손 들고 나와서 나그네 생활로 살다가 빈 손, 빈 몸으로 간다. 그렇게 한 철 사는 동안 주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는 문제는 집착·아상 따위를 여의고 사느냐, 내 것이라 움켜쥐고 조막손의 삶을 사느냐로 판가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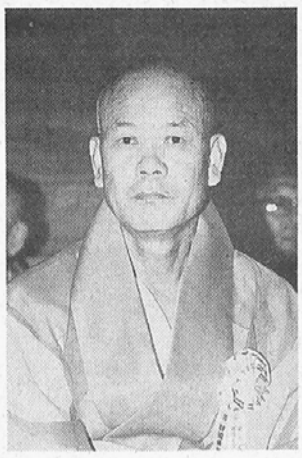
놓으면 자유요, 집착하면 노예다. 놓아버린 자는 살고 붙든 자는 죽는다.

협찬 : 마산 법형제회

교차로

"강원 설립등 교육불사에 최선"

대한법화종 제15대 총무원장 대 호 스님



"임기동안 항상 출가의 정신을 잊지않고 본래 면목을 참구하는 동시에 큰 심부름군으로서 성실히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믿음, 정진, 실천을 강조하셨던 종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본종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일 대한불교 법화종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제15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한 김대호스님(부산 용수암주지)은 무엇보다도 임기동안 교육불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다.

"승가교육 강화를 위해 강원을 설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 대호스님은 이를 위해 경남통영 안정사에 도제양성을 위한 강원을 설립, 종단의 위상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기 5년동안 △종헌 종법의 개정 △한방병원 건립 △현 총무원 청사를 창종 당시 청사인 성북동 무량사로의 이전 등을 비롯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호스님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와의 지속적인 불교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교류를 통한 양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전주 대사습놀이 장원 판소리부문 조 영 자 씨



"쟁쟁한 선배들도 많은데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죄송하고 기쁩니다. 오늘의 수상은 판소리 발전에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2일, 제2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문에서 역대 최연소 장원을 차지한 조영자씨는 불자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일곱번째 도전끝에 드디어 장원을 차지한 조씨는 고인이 된 박초월 선생의 문하생으로 본격적인 판소리를 시작, 언니이자 스승인 조소녀씨의 사사를 줄곧 받아왔다.

대회 최고의 영예를 안은 조씨는 "성량과 감정이 풍부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체력이 약한게 흠이라고도 하세요"라며 자신의 단점을 내보인다. 이어 "체력단련과 꾸준한 판소리 연습으로 신명들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는 그녀는 앞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노래도 불러보고 싶다고. 〈도필선 기자〉

판문점 '설명회'에 참석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2일 통일민족광복회의 회원들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 평화의 집 3층 회의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 이날 판문점 방문에는 설정 원산 종하 지하 일면 법타 시현 현근스님등이 동행했다.

문체부 장관상수상



동광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이사·도선사 주지)은 지난 7일 '95 대한민국 청년지도자육성 유공 부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연예협 가수분과 등록



지범스님(제주 극락사 주지)은 최근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에 등록되어 공식 활동을 펼치게 됐다. 스님은 지난달 5집앨범 '님께로 가오니'를 내고 찬불명상곡 발표회를 갖는등 음성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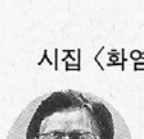
2기 봉사단 발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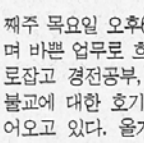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오는 21일 종로구 경운동 사무실에서 제2기 자원봉사 시민대학 수료 및 2기봉사단 발족식을 가진다.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재선

황명수씨(동국대 총동창회장)는 지난 3일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됐다.



'고려 불교미술' 강의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1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공개홀에서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다보문화강좌에 참석, '고려시대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19-2606

시집 〈화염길〉 펴내



박찬(시인·스포츠서울 문화부 차장)은 최근 민음사에서 '선사에서' '마음의 폐허' 연작등을 묶은 세번째 시집〈화염길〉을 펴냈다.

부산불교음악지도자 협회장

김성국교수(부산여전 음악과장)는 지난달 13일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교수는 우리 민족음악의 재조명을 통한 찬불가 제모습 찾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동국 발전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동국발전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가 지난 7일 저녁 7시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동대출신 언론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문언론인의 친목과 결속을 위한 동국언론인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에 중앙일보 전무 정운경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계사 청년회 18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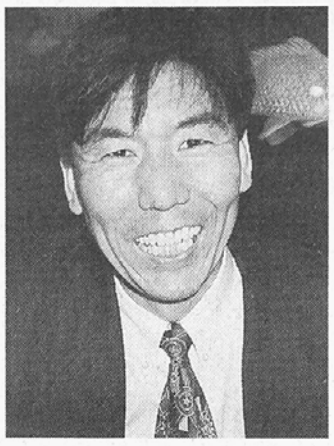


조계사청년회 18주년 기념 대법회가 지난 3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주지 현근스님과 청년회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사 청년회 문화부가 최우수부서로, 무법행 남정숙씨가 최우수법우로 선정, 수상했다. 또 회장 이성상씨가 총무원 표창패를, 조계사 재무국장 종문스님이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내일을 여는 불자

경불련 총무부장 임 영 래 씨



"불법포교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사회운동이야말로 지금 불교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6·27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의 '전국공동정책캠페인'과 지난 5월30일 발족한 불교시민단체 공명선거 감시활동에도 참여해 눈 코 뜰새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임영래 부장 (36,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총무부장).

89년 경실련 창립을 보면서 불교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임부장은 환경처에서의 공직생활과 국회에서의 1년간 활동끝에 91년 경불련 창립을 주도, 평소 원하던 불교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았다.

"세상 모든 것이 불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이치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자가당착과 권위에만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교의 대사회 회향을 강조하는 임부장은 인신매매 방지활동을 시작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공정방송 촉구, 자비의 집 개소,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난해 조계종개혁 동참 등 수많은 일을 해낸 경불련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손오공이나 저팔계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정작 보물불서를 가져온 사람은 삼장법사였습니다. 단순한 재주가 아닌 끊임없는 구도적 자세와 부동심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서유기를 예로 들면서 자기수행을 강조하는 임부장은 개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바뀌고 그래야만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어눌한 명분보다 실질적 대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임부장은 불교가 아직까지 자정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불교의 '자비사상이야말로 세계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사회활동 왕성한 실천 불교인

환경모임 외국인노동자마을 등 창립 산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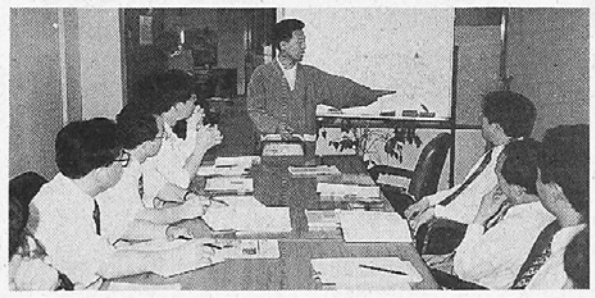
지난 3월 주부들로 구성된 환경모임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외국노동자 마을' 탄생의 산파역할을 도맡았던 임영래부장. "당분간 외국인 노동자 마을 활동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민간의교관이 되고 싶습니다"고 말한다.

흔들림없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으로 다가가는 길임을 임영래부장은 확신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70여 회원 교리공부에 몰두

불법배우고 실천해 직장생활도 신바람

탐 방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 회원들은 불교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으로 법사님의 특강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화두란 무엇인가요?"

"참선은 명상과 같은 것입니까?"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빌딩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 12층 회의실.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회장 김광덕)의 회원들이 묘각 지도법사에게 쉴새 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쉽고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회원들의 요구에 매번 해오던 금강경 해설강의를 뒤로 미룬 채 특별강의가 시작됐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이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전형적인 회사원 차림의 불교연구회회원들은 갓 입학한 신입생들처럼 귀를 세우고 강의에 몰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는 지난 91년 불교에 관심있는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일구어낸 직장신행모임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6시 법회를 진행하며 바쁜 업무로 흐트러진 일상을 바로잡고 경전공부, 교리공부를 통해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오고 있다. 올가을에는 유명사찰을 방문해 덕 높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직급을 초월해 과장 부장 평사원 모두가 똑같은 발심제자가 되는 이 시간, 법사님의 가르침을 한자라도 빠뜨릴까 열심히 메모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진지하기까지 하다.

아는 대로 행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법사님의 강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질문이 시작됐다.

"반야심경은 모든 사찰에서 다 봉독하나요?" "깨달음이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속에 불교연구회의 튼실한 신행활동이 다음 법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회의실 한쪽벽에 나붙은 홍보포스터 '고객이 웃을 때 우리의 보람도 커집니다' 문구에서도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 속에서 바른 직장생활을 엮어가고자 하는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 회원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은자 기자〉

게시판

▲대흥사 1차여름수련회=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천운스님)는 4박5일 일정의 여름수련대회를 3차에 걸쳐 모집한다. 1차수련회는 오는 7월2일~6일이다. (0634)34-5502

▲가스폭파 희생자 위령재=한국불교 태고종 대구종무원(원장 관허스님)은 오는 14일 두류공원서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대구 지하철 가스폭파사고 희생자 합동위령재를 봉행한다. (053)622-3702

▲합창단원 모집=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은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02)725-7527

▲부산구도회 6월법회=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김인평)는 15, 22, 29일 오후7시 부산 동구 한동대 신경정신과의원 3층 법당에서 6월 법회를 갖는다. (051)462-5062

▲사찰순례=대구 은적사(주지 법민스님)는 오는 17일 전남 백양사, 내소사, 실상사 사찰 순례를 떠난다. (053)653-1572

인사 불교방송은 지난 5일 기획심의실 구기범부장을 심의부 부장으로, 최창기차장을 총무국 기획부 차장으로 인사발령 했다.

'95 신·편입생 모집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6월 3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511-2026~8, 511-1080) 주소: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 확대와 불교 대중화·생활화를 이땅에 펴고자 30년을 정진하신 한정섭 대법사를 교수로 모시고 불교기초교리·전문교리를 종합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기초반 2기 ■ ■ ■ 중등반 1기

1. 개강 : 1995년 7월 4일 오후 2시
2. 장소 : 청량선원 큰법당(기초반 2기), 청량선원 작은법당(중등반 1기)
3. 강좌내용 : 기초반 2기 ➡ 불교기초교리해설(한정섭 법사)
비교종교학(BBS 자비의 전화 진행자 이경우 교수)
아함경 해설(BBS 자비의 전화 진행자 정명 스님)
중등반 1기 ➡ 천수경해설(한정섭 법사 외 특강)
4. 기간 : 3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5. 수강회비 : 매월 3만원

•경전연구반• 1.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청량선원 큰법당
3. 강좌내용 : 화엄경(한정섭 법사) 4. 수강회비 : 매월 5만원
5. 문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사무국(02-964-8044, 8085)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부설
한국불교 교양대학장 석 성 륜

"茶는 나를 탐구하는 벗이죠"

낮에는 차 한 잔
밤에는 잠 한 숨
푸른산 흰구름
함께 무생사(無生死)를 말하네.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 여기 차(茶) 한 잔에 그 답이 담겨져 있음을 향기로운 불심으로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



산문밖의 禪

茶人 박동춘 씨

창문너머로 보이는 울창한 숲의 향취에 갖 달여낸 작설차 향내를 징검다리로 처음 마주한 과천서당의 훈장 박동춘선생(44).

"저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단지 차를 즐기는 편에 지나지 않아요" 툭 던진 한마디.

진실로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차의 선(禪)경지에 이른 것인가. 무엇이든 즐긴다는 것은 이미 그 가치와 도(道)를 아는 것이기에 박선생의 겸손은 그가 입고 있는 헐렁한 티셔츠 차림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왔다.

와 차공부를 시작한 박선생은 그러나 차의 일상적인 영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에 여유를 주죠. 눈동자를 맑게 하고 생각의 깊이도 더해주죠. 그래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호품이라고 생각해요."

향기, 여유, 빛깔, 대화, 명상. 삶을 아름답게 색칠하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차 한잔에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박선생.

"바짝 말랐던 차가 얼마간 물속에 있으면 부서지지 않고 처음 딸때의 생잎모양 그대로 되살아 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래불성은 살아가면서 모든 번뇌망상과 무명에 가려져 볼 수 없게 되지만 이걸 깨달으면 자신본래의 참불성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뭐랄까요 바로 그런 이치가 차가 다시 생잎처럼 피어나는데 담겨져 있다고 할까요."

박선생의 차얘기는 어느새 불법에 다가와 있었다.

마른차 생잎처럼 피는 모습보며 '본래 자기' 공부

"그래요. 저는 차를 사랑합니다. 차와 인연을 맺은 것이 24살때였으니 벌써 20여년이란 세월을 차와 함께 살아온 셈이네요. 은은한 향의 차 한잔, 그것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잡념을 떨쳐버릴수 있어서 좋지요. 그 맛도 맛이지만 차를 즐겨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묘한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침내 차를 사랑하고 차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말하는 박선생의 눈동자가 차의 생잎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차로 명예도 이익도 구하지 말라던 스님의 가르침 명심하고 있어요"

입과 코로 나오는 향내

"차(茶)의 세계는 곧 선(禪)의 세계입니다. 차는 다루는 사람의 정성과 청탁(淸濁)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욕의 경지에서 차를 탐미할 때만이 진정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있지요."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연수부에서 한문을 공부하던 중 해남 대흥사 응송 영희스님과 인연을 맺어 본격적인 불교공부

"대흥사에서 1년쯤 지났던 어느날인가 새벽 3시쯤으로 기억돼요. 스님과 함께 막 딴 햇차를 마시는데…, 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향으로 된 덩어리가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 조금있으니까 뱃속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향이 입과 코로 나오더군요. 그 이후 아직까지도 그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불교와 차와의 20년 인연속에서 아직까지 그 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것일까.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두 손으로 감싸안은 찻잔에 흘러내렸다.

다시 찻잔을 입에 대며 올해로 8년째 차를 만들어 1백여명에게 무상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박선생. 그를 다인(茶人)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건 차로 명예도, 이익도 구하지 말라던 스님의 가르침인 평상심(平常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잎을 딴다는 것은 신성한 작업이예요. 삼가고 또 삼가고. 이것을 완성된 차로 만들어내기까지 혼을 불어 넣지 않으면 제대로 된 차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다인(茶人)이라는 말에 펄쩍 뛰는 박선생.

'차 만들기' 신성한 작업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차라도 그것을 탐미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진정한 차의 세계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었다. 쉽사리 풀리지 않을 듯한 삶의 이야기, 그것은 결국 제대로 차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삶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철저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박선생은 차를 통해 얘기한 것이다.

자신의 차를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기를 꺼려하는 박선생. 대중화도 좋지만 그로인해 명예와 이익을 구하게 될지도 모를 자신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차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그 맛과 향을 느끼며 차를 벗삼아 나를 탐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길이 차를 아끼는 사람의 평생 가야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단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불심깊은 인연을 만나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박동춘선생.

빈 찻잔에 다시 자신의 혼을 따르고 따뜻한 향내는 어느새 모락모락 정성스런 손틈새로 피어 오른다.

경기 과천=한명우 기자



삽화 · 이기선

'앙갚음' 마음 버릴때 자비나와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㉚

화 합

오늘날 사회는 날로 복잡하다. 언어적 마찰로 말미암아 사회적 물의를 자아내게 된다. 언어사용의 남발, 행위의 자존성으로 상대와 불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은 자존심을 앞세워 상대를 예속시키려는 횡포를 부린다. 부처님 당시에도 작은 문제를 갖고 도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소한 행위를 제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여기 한 예화를 살펴보자.

부처님께서 코샴비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떤 제자가 자기는 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너는 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범하였느니, 범하지 않았느니 서로 시비하다가 마침내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제자가 대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여 교리와 계율에도 밝았으며 도닦는 마음이 견고했다. 또한 친한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곧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고 동정을 얻어 한 무리가 되어서 자신을 내쫓았던 대중들과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럽뜬었으며 꾸짖고 욕설을 하였다.

허물만 보는 어리석음

부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걱정을 하시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교단의 평화를 깨뜨리는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먼저 제자를 쫓아낸 대중들에게 가셔서 훈계하며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다른 제자의 허물만 보고 미운 생각을 내어 경솔하게 제자를 쫓아낸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쫓겨난 제자에게로 가셔서 말씀하셨다.

"제자여, 너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비유하자면, 여기에 어떤 제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 제자는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은 죄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 죄지은 제자는 상대편 제자들에 대해서 '이 스님들은 사실상 오랫동안 수행을 한 이들이라 교리와 계율에도 밝고 도 닦는 마음이 견고한 이들로서 자기 개인의 일로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또는 아집을 내지 않는데, 다만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에 불화가 일어나며 싸움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화합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처님법을 위해서라도 그 죄를 인정하여 대중공사에 순종하여야 한다."

물과 젖 합하듯 행동 삼가야

부처님께서는 다시 여러 제자들을 모아 여섯가지 화합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여기 여섯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으니 잘 기억하고 존중하여, 이것에 의지하여 화합과 단결로써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① 계율을 같이 지니고,
② 소견을 같이 지니고,
③ 공양을 똑같이 나누고,
④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고,
⑤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⑥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른날 아침에 코샴비에 들어가 걸식을 마치고 절에 돌아오셔서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여섯가지 화합法 명심

"제자들이여,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각자가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참아야 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법답게 노력해야 한다.

화합은 물과 젖을 합한 것과 같은 것이니 부처님 법을 같이 배워서 안락하게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게송을 읊으셨다.

오래 보지 말고 빨리 보지도 말라
원수는 크든 작든 앙갚음하지 말라
원한은 증오로써 가셔지지 않나니
오직 갚음이 없음으로 원한은 사라진다.

사람들이 제일 갖기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앙갚음의 마음이다. 이 앙갚는다는 선점의식(先點意識)이 사라지면 상대를 이해하는 자비심이 솟구친다. 우리는 앙갚음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화합의 울타리에서 노래할 것이다. 화합은 어디서 오는가. 앙갚음의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 내 마음속에 기름이 있으면 우유로 만들 때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행은 화합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직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공 고

불기 2539년도
대한불교 경승단 연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경승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일부 결원된 경찰관서의 경승 충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승 연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회 일정** : 불기 2539년 6월 23일(금) ~ 6월 24일(토)
■ **연수회 장소** : 경기도 화성군 신흥사 ☎ (0339) 57-2695
■ **연수대상** :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승, 신규 경승 지원자
■ **연수교육비** : 5만원(교육비, 교재비, 식비 등)
■ **연수교육후**, 경승활동이 미진한 곳은 해임하고 신규 경승을 위촉할 예정임.
■ **준비물** : 가사장삼, 세면도구
■ **교통편** : 가) 대중교통 : 수원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서신행버스 신흥사앞 하차
나) 승 용 차 : 수원-비봉-남양-마도-사강-서신-신흥사

▷ 미리 접수받습니다 : 전화나 편지로 6월 17일까지(부득이한 경우, 당일 접수 가능)
Tel (02) 720-7060~4 / Fax (02) 720-7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참조 : 6월 23일 오전 10시까지 조계사에서 모여 함께 출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화성 신흥사에 12시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6월 일

대한불교 경승단 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광복 50주년 기념 및 도덕성 회복 기원대법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광복 50주년과 민족분단 반세기를 되돌아보며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인과법칙을 통하여 사회윤리를 바로 세우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심이 깊으신 불교계 지도자를 모시고 기념법회 및 강연회를 마련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동참하시어 더욱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5년 6월 17일(토) 15:00 ~ 17:00
■ 장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중구 필동 3가 소재)
■ 식순 :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삼귀의례
• 찬불가
• 반야심경봉독
• 헌화 및 헌향
• 개식사:김용직 회장(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관음종 전국신도회 회장)
• 법회:오녹원 이사장 스님(동국대학교)
• 격려사:이홍과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관음종 총무원장)
• 축사:송석구 총장(동국대학교)
• 발원문:김철회 회장(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공동회장, 태고종 전국신도회 회장)
• 사홍서원
• 폐회선언

문의전화 : 732-9155, 734-9917 / FAX : 735-88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4-1 삼송빌딩 802호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 김 용 직 합장
공동회장 김 철 회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씹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02-737-8881
F.02-737-0697
부산지사
T.051-634-5114
F.051-634-5188
광주지사
T.062-375-9986
F.062-371-7544
대구지사
T.053-427-8008
목포보급소
T.0631-281-2534
공주보급소
T.0416-856-3280
"2천만에 깨달음을"

이종철·김영욱씨 가산 학술상 수상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제5회 가산(伽山)학술상에 서울대학원 강사인 이종철씨(인도철학 전공)와 고려대 강사인 김영욱씨(禪사상 전공)가 선정됐다.

'12處考'란 연구주제로 수상자에 선정된 이종철씨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世親사상의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도 마이소르대 연구원을 역임했다. 김영욱씨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壇經〉의 선사상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洪州宗과 荷澤宗의 논쟁'이란 연구주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이종철씨 ◇김영욱씨

지난 91년 연구원 개원과 함께 제정, 91년 6월 제1회 가산상이 시상된 후 제5회째가 되는 가산학술상은 연구의 전문성·독창성, 한국불교학계에의 기여 예상도, 가산연구프로젝트와의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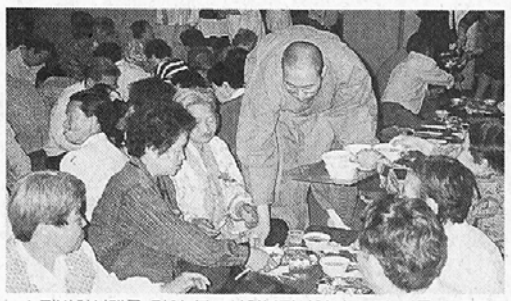
한편 연구원은 95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한국불교사상대계(정5권)〉 편찬, 본격 원전번역을 목표로 하는 〈가산불교학술총서〉 간행사업을 연구비 지원분야로 확정했다.

"불교 복지 전문인 양성 급선무"

'지자시대 사회복지' 세미나 지역단체와 긴밀한 협조 중요

지방화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지난 9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법인 설립을 계기로 불교계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체계화 정립을 위해 '지방화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연 이번 세미나는 종교계 사회복지의 주체자로서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교계 시설단체 운영자들의 연대모임의 장을 제공, 사회복지사업의 현안문제에 공동대처할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불교사회복지사업이 보다 적극적 조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진은 길음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기조발제에 나선 박종삼교수(숭실대·한국사회복지학회장)는 '지자시대에 따른 민간복지기관으로서의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란 발표문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기존 지역사회내 민간복지단체와 긴밀한 협의관계를 맺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복되는 일을 피하면서 새로이 유발되는 지역사회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공동모금법이 통과되어 공동모금위원회등이 구성될 때 종교지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 자원의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정학교수(국립사회복지연수원)는 "불교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인적·물적·동기적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와 전문가 부족"이라며, "복지전문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연구기관을 조속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승가대학에 불교사회복지대학원을 조속히 설립,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현임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지적됐다. 또한 복지사업을 위한 경제적 자원동원의 방법으로 사찰시설의 활용, 후원금 모금활동, 전문가 양성을 통한 후원자 개발과 관리 및 후원자 결연사업 등이 제시됐다.

김재경 기자

"지자 선거후 사찰 문화재 훼손"

불교환경교육원 심포지움서, 무분별 개발 대응책 촉구

27일 지자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명분으로 한 골프장,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휴양 편의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설로 국립공원 내의 사찰환경과 불교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등 환경문제가 불교계의 직접적인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지난 8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제23회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는 '지방자치시대의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환경운동' 심포지움을 열고 지자체선거 이후 야기될 지방화시대 환경문제에 대비하는 불교계의 대처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동국대 오홍석교수(지역환경연구소장)는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과 불교의 환경운동'이란 발표문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열악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 △자연및 문화유산의 훼손우려 △인구 과밀·과소문제로 인한 지역격차의 표출 등을 지적하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일체불이(一切不二)의 공존시스템으로 보는 불교사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사찰이 청정한 자연, 전통문화의 유적지라는 측면에서 도시주변의 그린벨트처럼 최우선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보전이 강화돼야 한다"며, "불교계는 지자체 단위별로 신도회를 조직하고 환경운동본부 및 사업별 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대적 변천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무모한 개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과)와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가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사찰보존', '국립공원보존의 실태와 생물종 다양성'을 각각 발표했다.

집에 불상 모시고 고기 먹는데…

문 집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해 네분 불보살을 모셔놓고 조석예불, 사시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이 건설업이라 회식자리가 많고 그래서 가끔 고기를 먹게 됩니다. 조석예불은 천수경·예불문·정근·반야심경 순으로 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김주복·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답 부처님께서는 생명존중의 뜻에서 육식을 금하셨습니다. 비구 250계나 10중계, 48경계 중에서도 음주와 육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계율로 10선계를 강조한 십주비바사론에 의하면 불살생의 조항은 있어도 육식에 관한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구·의를 청정케 하라는게 10선계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불상을 모셔놓고 조석예불 하시면서 가끔 육식을 하게 된다고 고민하시는데 딱히 그래야할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어느 것 하나 생명 아닌 게 없는데 그렇다면 산다는 것 자체가 살생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데 따라 수많은 생명이 죽고 손을 씻는 동작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씻겨져 나갑니다. 또 육식을 않고 채식을 한다해도 그 또한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먹고 먹히는 연쇄고리로 되어 있는 가운데 생명 존중,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체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면 모든 생명체를 천도한다는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그런 마음이면 소 한마리를 그대로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을 내 몸같이 여기라는 뜻에서 살생을 금하셨지 먹고 사는 자연의 질서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령 취미삼아 살생을 한다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살생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또 재가신도로서 가정에 불상을 모셔놓는 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이왕 모셔놓고 오랫동안 예불을 해 오셨다니 그대로 해 나가셔야 하겠지요. 하지만 예불이란 밖으로 형상에다 대고 비는 게 아니라 자성불에 일심으로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에 편만한 법신불, 그리고 나를 형성케한 자성부처 자리는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로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공(空)에 귀명하는 게 예불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불의 형식이나 시간·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는 중에 언제나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늘 예불하는 마음을 지켜가세요. 그리고 자기생활의 질서에 따라 편리한 시간, 편리한 장소에서 조용히 자신을 관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남전스님이 고양이 목 벤 뜻은

문 '남전참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남전스님께서 동당 서당의 학인들이 분별심으로 소유에 집착하니까 경책하시는 뜻에서 살생을 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효선·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답 거기에는 세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양이를 죽인 게 옳으냐, 살려뒀어야 옳으냐는 것이고, 둘째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조주스님이 왜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갔느냐는 것이며, 셋째는 남전스님이 왜 불살생의 계율을 어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이 세 관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말을 함이 없이 대답해야 하겠고 남의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온다면 함이 없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식의 대답을 따라하면 큰 허물이 될 것이고요. 남이 안보는데서 물건 하나 슬쩍했는데 뭘 알겠느냐 싶겠지만 제 마음이 알고 있으니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체는 한마음으로 돌아가니 부처 중생이 둘 아니게 공생·공용·공체·공식하는데 어떻게 모른다 하겠습니까.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병은 마음 공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요리조리 사량분별하고 빠져나갈 궁리만을 찾는 사람에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야 수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느때 풀 수 있겠으며 우주 삼라만상을 어찌 다 섭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생사문제까지도 내려놓고 뚫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지 두번 죽는게 아니니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물 배라도 채울 양으로 웅덩이에 엎드리는데 거기에 비친 내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왜 이리도 험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그 또한 부처니라, 그 속에 부처가 있느니라' 이러더란 말입니다.

부처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 마구니 소굴에도 들어가고 개구리도 되고 돼지도 개도 되느니 어떤 모습이 될 때를 부처라 하겠습니까?

남전참묘를 궁리하는 그것까지도 부처자리에 놓고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통도사

禪窓夜夜梵鐘鳴
(선창야야범종명)
喚得心身十分淸
(환득심신십분청)
檜樹蒼蒼山勢頑
(회수창창산세완)
葉間風雨半天寒
(엽간풍우반천한)

老僧出定忘聲色
(노승출정망성색)
頭上光陰似轉丸
(두상광음사전환)
玉鏡函空波不起
(옥경함공파불기)
煙巒繞坐雨初收
(연환요좌우초수)
牢籠景象歸冷筆
(뢰롱경상귀냉필)
揮斥乾坤放醉眸
(휘척건곤방취모)

범종각

紅塵謝絕心如水
(홍진사절심여수)
白水低徊氣尙秋
(백수저회기상추)
鷲背山高風萬里
(취배산고풍만리)
鶴邊雲盡月千秋
(학변운진월천추)

선창(禪窓)에 밤마다 종소리 울리니
몸과 마음 아주 맑아지네
울창한 회나무 숲 완악한 산세 속
숲 사이로 비바람 서늘하게 불어오네
선정(禪定)에서 깨어난 노승 성색(聲色)을 잊고
머리위에 광음은 총알같이 빠르네
맑은 물 잔잔히 흘러 파도 일어나지 않고
자욱한 안개 속에 비가 개이네
한 폭의 경치는 그림같은데
하늘과 땅 벌려진 모습 취한 눈에 어리는듯
시끄러운 세속을 여의니 마음 물처럼 맑고
맑은 물 흐르는 곳에 추상같은 기운 감도네
영취산(靈鷲山) 높은 기풍 만리에 뻗치고
학이 날아 구름 걷히니 천추의 달이 밝네

일체중생 해탈바라는 마음 담겨

해설 범종각은 범종과 운판, 목어, 법고(홍고) 등 사물(四物)을 장치해 둔 곳이다. 조석 예불때나 법회때 이곳에서 사물을 두드리게 된다.

사물을 두드리는 데는 매우 큰 불교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중생과 지옥계의 고통을 벗어 던지고 부처님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과 원력이 담긴 것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범종은 지옥중생을 위해, 목어는 물밑 중생을 위해, 운판은 날짐승을 위해, 법고는 축생계의 짐승을 위해 두드리는 것이다. 일체중생의 완벽한 해탈을 희구하는 바램이 이 사물을 통해 표현되는 셈이다.

통도사의 범종각에 걸린 주련의 내용은 대단히 서정적이다. 중생고를 거두어내는 원력보다는 범종각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사찰에서의 서정성을 짙게 깔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내용은 범종 소리가 갖는 투명한 아름다움과 선정(禪定)을 대비시킨 것이어서 불보종찰의 풍모와 통하는 그 무엇을 일깨워준다.

〈안동 경안중 교사〉

「韓國放送廣告公社」는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공익광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15년째 공익광고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러 냅시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 받는 타락선거,
학연이나 지연에 끌려 표를 몰아주는 투표,
아직도 이런 선거풍토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선거문화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돈이나 선물을 주지않아도 당선되는 깨끗한 선거—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한표로 다음세대에
깨끗한 선거풍토를 물려줍시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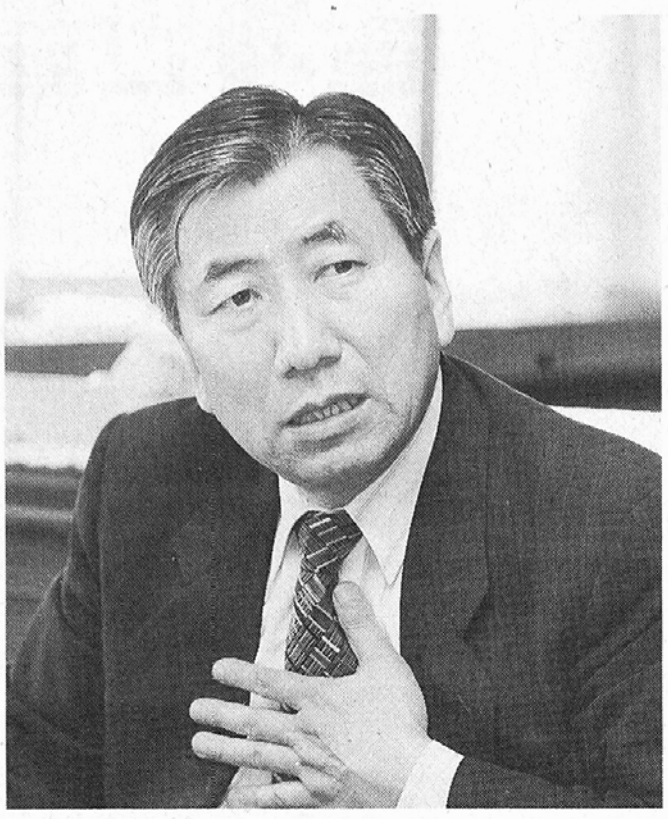
손길은 일류로 발길은 세계로

전국 유적 CD에… '얼 살리기' 초석

수요인터뷰

문화유적 전산화 착수

문화재연구소 장경호 소장



경주 등 古都 보존대책수립 전국민 몫

대형 불사 지양…환경조화 우선돼야

문화유적 관리에도 첨단시대가 활짝 열렸다.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전국규모의 문화유적총람 작성을 위해 유적현황 전산입력작업을 준비중이다. 지난 4월 문화재연구소 개소 20년을 맞았으며 아울러 문화유적 전산작업에 착수한 문화재연구소 장경호소장(60)을 만났다.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이 두장의 CD롬에 담겨진다니 획기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유적보호는 물론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절대적으로 활용될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CD롬의 전산화 작업은 우선 전국문화유적총람의 보완제작을 위해섭니다. 지난 77년 〈문화유적총람〉이 발간됐지만 1만1천6백70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락된 유적들이 많지요. 이후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문화권별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 대학·학술단체에 의해 조사된 것이 1만7백여건, 지방문화재연구소 등을 동원해 새롭게 파악된 것이 1만여건 등 3만건 이상의 유적정보를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초작업으로 CD롬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훼손 사전예방 자료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십니까.

▲제주도부터 시작해 올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8개지역 유적에 대한 일대 조사에 나서 올해 말쯤 CD롬 1장에 담을 계획입니다. 유적별로 명칭·소재지·내용·관리자 등의 일반정보와 함께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소개, 지역별·유적별·시대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도 아래 시 군 을 단위의 유적을 CD롬에 담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시 전산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공단조성, 토지구획정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문화재관리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발하려는 곳에 유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관리국에서는 우리 연구소로 문의합니다. 그러면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 회답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걸리죠. CD롬이 제작되면 카피해 각 시·군 문화재 관리국에 하나씩 비치 검색해 보면 해당지역에 무엇무엇이 있나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고속철도가 통과하고 경마장 건설이 추진중입니다. '문화유적파괴'라 반대하는 학계와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주민들이 광광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난 89년 공청회가 열렸을 때 경주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구도시는 '고도보존특별조치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습니다만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금 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건설돼 있어요. 몹시 시각적으로 거슬립니다. 경주 시민들이라고 살기에 편리한 아파트에서 살지 말라는 이유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경주라는 古都의 전체주위 환경을 고려해 5~6층 정도의 낮으면서 '古都'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경제성과 금전적 이익만 생각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놓으니 문제지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도시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앞장서 보존에 나섭니다. 일본만 해도 교오또나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건설정책이 자기네 역사적 지역과 상치되는 것이면 자체적으로 전단을 돌리는 등 반대가 극심합니다.

―전에 아파트를 짓는다, 도로를 만든다 하다가 유물들이 나와 신고하고 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 지역의 편의와 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한 개발이 상대적으로 문화재 훼손을 재촉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개발과 보존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문화재 보존과 항상 상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타협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경주의 고속철도 어느 위치다 하고 미리 설계 다해놓고 발표하니까 문제입니다. 위치 설정할 때 문화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데 먼저 발표해 놓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공사이건 사전에 관련학계, 환경·문화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에도 골프장이 들어선다 하여 사중스님들과 신도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적이라는 것은 그 유적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지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운 산과 물을 얼마나 파헤쳤는지 우리들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가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 스님들이 앞장서 막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찰의 불사도 어느때 보면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해인사는 기막히게 주위 산세와 잘 조화된 건물입니다만 구광루를 보수한다고 해 허가했더니 어울리지 않게 크게 지어놨더라구요. 원래 구광루는 예쁘고 아담한 당우로 주위 산과 장경판고와 잘 어우러진 건물입니다. 크고 높게 지으니 전체 조화가 깨져 구광루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사찰주변에 골프장 '웬말'

―지난 80년대부터 불교계에서는 대형 건물불사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 부작용이 적지 않지요.

▲사찰주지스님 등 개인 의견대로 무조건 크고 또는 금전적인 손익만 계산해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절의 역사를 조사해 건물지가 어떤 형태로 배치돼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전체적 조화를 생각해 불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30년넘게 문화재 관리국과 인연맺으며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보람이 있으시다면.

▲제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전통 한국의 건축을 대부분 접할 수 있게 되고 전통 건축의 맛을 알 수 있게 된 점이 문화재와 인연맺은 수십년의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75년 개소당시만 해도 문화재연구소는 43명 밖에 않되는 인원과 시설, 예산이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개의 연구실과 3개의 지방연구소로 확대 발전되어 상근직만도 150명이 넘습니다.

보존과학실의 경우 박사들이 첨단장비로 유물을 분석합니다. 또 발굴전에도 유적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첨단장비로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을 보면 보람이 큽니다.

―건축을 전공하셨지요.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신 건축을 꼽는다면…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전 자체만 해도 지극히 좋은데 자연석 축대와 주위 환경과 조화된 모습은 보면 볼수록 끌리지요. 언젠가 건축학회 회원 2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고 무량수전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구요.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박영근 〈우진 인테리어 대표〉



"마음을 낮추며 살자" 항상 다짐

큰스님 법문 듣고 신행의 지침 삼아

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자락에 있는 천태암에 어머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이 세상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나와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우리 집안은 부산 동래구에서 15대째 대대로 부처님께 귀의하며 살아온 불교집안이다. 천태암과 동명사를 아버님의 이모님과 고모님께서 창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았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나를 천태암 석불(돌부처님)에게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에 가면 무조건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삼배를 올리게 하셨다. 학창시절에는 고시공부를 한답시고 전국 큰 사찰은 다 돌아보았다.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그리고 사리암, 보리암, 운수암, 백련암, 봉정암, 오세암 등 많은 암자와 사찰을 돌아다니던 기억이 떠오른다.

70년 11월 사리암에서의 일이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활짝 열고 좌선을 하며 입정을 하고 있을 때 산속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나의 두 뺨을 어루만져 줄 때의 행복감이란 마치 부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행복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 이후 미국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용기있는 자로 만들어 준 것은 반야심경 봉독의 힘이라 생각한다. 87년 귀국하여 범어사 원효암 강지우큰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강지우스님의 법문 주제는 '마음'이었는데 항상 잊지 않고 있다. 스님 말씀이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도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인간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웃게해서 즐겁게 만들고 또 울게해서 슬프게 만든다.

즉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차이며 만족과 불만족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부처님께 백배 천배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하셨다.

염불을 잘 하고 시주를 많이 한다고 남보다 열배 백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 아버지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열심히 충실히 하는 것이 복 받는 일이라 강조하셨다.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달아도 대웅전내에 달려고 하지말고 남이 달지 않는 어둡고 힘든 자리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로 인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연등의 의미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항상 만족되게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 이후 나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산불교실업인회에 가입할 수 있었고, 또한 총무이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숱한 법회를 보아 왔지만 부산불교실업인회의 회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생각하며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우리 불교실업인회에서는 매월 사찰을 찾아 월례법회를 연다. 지난 5월 월례회는 부산 진구 가야동에 있는 신흥사에서 흥교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었다.

5월 법회에서 흥교 스님의 법문은 '下心'이었다. '下心'이라는 법문중에 마음을 낮추면 불평과 불만은 있을 수 없고, 다툼과 화를 낳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말 나의 가슴에 와 닿았으며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에도 큰 감동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8년전에 자우 큰스님께 들은 '마음'과 흥교 큰스님의 법문인 '下心'이 부처님을 향한 나의 불심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있다.

이렇듯 도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큰 스님들을 찾아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내 신행의 중요한 지침이며 중심이다.

나는 항시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산다.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또 내가 하는 인테리어와 디자인 협회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것도 부처님의 공덕이시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부처님의 뜻을 기리며 매주 일요일 새벽마다 부처님을 뵈러 사찰을 찾는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회관·회구니·신부회 분대불·성화·조화·동양란·서양란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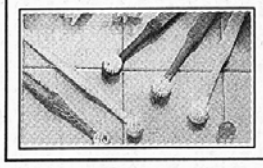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여직원 급모집
탄허 불교 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여고 졸업자 약간명
• 30세 미만
• 불교 신자 또는 불교 활동을 한 자
• PC 가능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전화 연락처 기입)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방문요함)
제출처 : 서울 중구 신당3동 368-100
전 화 : 237-4438
탄허불교문화재단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 (02)556-3076~7 ■팩스 : (02)556-3078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천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1명씩모집)
원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창만청빌관 2층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5〉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⑤ 끝

小人之於利也 雖或萬求而萬不得
소인지어리야 수혹만구이만부득
而求之彌勇
이구지미용
君子之於道也 求之必得
군자지어도야 구지필득
而望途懶法 自念力不足者
이망도회겁 자념역부족자
此 求利小人之罪耳
차 구리소인지죄이

소인은 이익에 있어 비록 만번을 구해 만번 얻지 못할지라도 더욱 용맹스레 하고 군자의 도에 있어서는 구하면 반드시 얻으나 중도에 겁을 먹고 스스로 역부족이라 생각하는 이는 이익을 좇는 소인보다 못할 뿐이로다.

仲尼 曰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중니 왈인원호재 아욕인 사인지의
言求之而必得也
언구지이필득야

공자 이르되, 인(도)이 멀리 있겠느냐 내가 仁하고자 하면 이른다 하니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①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도
餘十有五而志于學 往再光景 條忽老至
여십유오이지우학 임염광경 숙휼노지
歲月 旣深 粗妄旣趣
세월 기심 조지기취
번數千昔 殊失斯旨 限迫桑途 學不可逮
번탄주석 수실사지 한박상유 학불가체
因述十門 垂裕後昆
인술십문 수유후곤
俾務學而成功 助弘
비무학이성공 조홍
教而復顯云爾
교이부현운이

①심학을 닦지 아니하면 성물할 수 없다.
열반경에 이르되 대저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하였으니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품이 텅비어 통하고 신령토록 밝고 항상 고요하니
만약 있다고 하면 모양도 이름도 없음이요 없다고 하면 성스럽게 영통한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되 힘을 쏟지 못하고(임염:땡볕에 나뭇잎이 늘어지는 것) 잠깐 사이에 늙었는지라 세월이 깊어지고야 그 뜻을 조금 알았다.
돌이켜 지난 날 유별히 뜻 잃음을 한탄하나 시간이 급박(인생말년에 이름)하여 석양인지라(상유:석양이 뽕·느릅나무 가지끝에 걸린 모양) 배워도 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런 까닭에 열가지 문을 지어 후배들에게 넉넉히 펼쳐보여
바름에 힘써 성공케 하며 널리 가르침이 드러나도록 돕고자 하노라

群生 無始 不覺
군생 무시 불각
自迷 煩惱覆蔽
자미 번뇌복폐
遺此本明 能生
견차본명 능생
諸緣 枉入六趣
제연 왕입육취
由是 大覺 憫物
유시 대각 민물
迷盲 說戒定慧三學之法
미맹 설계정혜삼학지법
其道 恢弘 示從眞以起妄
기도 회홍 시종진이기망
制範群品 令息妄以歸眞
궤범군품 령식망이귀진

뭇 중생이 비롯없이 스스로 미혹해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덮이고 싸여
본래의 밝음을 잃고 온갖 인연을 지어서 몸을 굽혀 육취에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부처께서 중생의 미혹하고 눈 어두운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계·정·혜 삼학을 시설하셨다.
그 도가 크고 넓어 진여로부터 망념이 일어남을 보이셨고
뭇 성품에 본보기를 보이사 망상을 쉬어 진여에 돌아가게 하셨다.

龍眼

①不修學 無以成(불수학 무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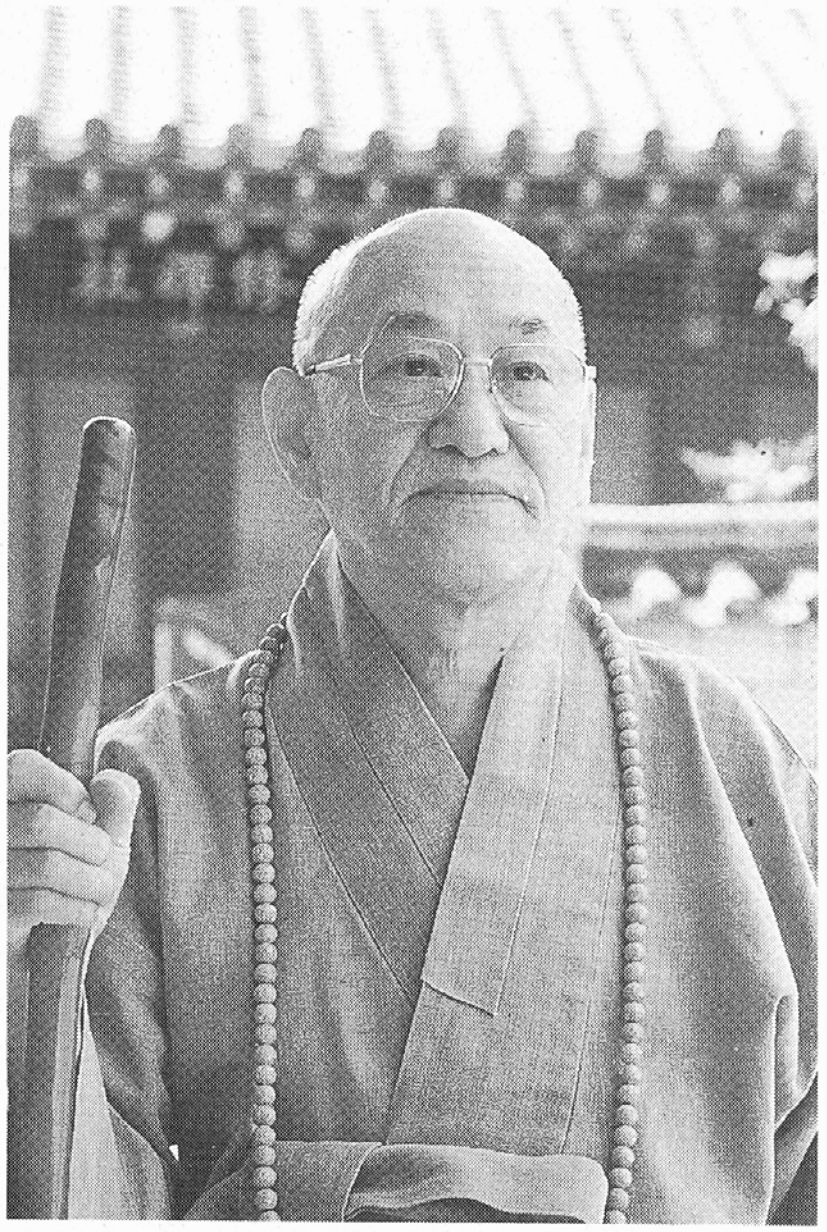
涅槃經 云 凡有心者 皆當得成
열반경 운 범유심자 개당득성
阿耨多羅三藐三菩提
아뇩다라삼먁삼보리
何以故 盖爲一切衆生 皆有佛性
하이고 개위일체중생 개유불성
此性 虛寂 靈明常寂
차성 허통 영명삼적
若謂之有 無狀無名 若謂之無 聖以之靈
약위지유 무상무명 약위지무 성이지령

★ 지상법석

"일체만물은 나와 한몸

능가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一切男子가 是我父요
一切女子가 是我母로다
故로 六道衆生이 皆是我父母로다.
모든 남자가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자가 나의 어머니로다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이 모두 나의 어버이로다.

이는 〈범망경(梵網經)〉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이지요.

일체중생이 내 아버지 어머니요, 형제 동생이 된다는 이 말씀은 '내 혈통' '너의 혈통'이 아무 의미없는 구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金가니 李가니 朴가니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에 편하도록 인위적으로 姓을 갈라 놓은 결과일 뿐이예요. 근원적으로는 혈통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어릴때부터
천지만물이
나와 한몸임을
가르친다면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쌓여

말입니다.

우리는 전세(前世)의 인연으로 인해 잠시 어머니 뱃속을 빌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낳고 싶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이 동원되어 내 몸을 만들고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몸을 내게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내 부모요 모든 사물은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천하만물이 그대로 너와 내가 되고,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天地)만물은 곧 나(我)요 나는 곧 천지만물이라'는 말을 종교적 교육적 차원에서 아들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네것' '내것' '박가' '김가'하는 식의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개별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방종주의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지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가르친다면 잠재의식속에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쌓여 남을 해치거나 자기만을 위하는 혼탁한 세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만악(萬惡)이 '모든 인간이 한마음 한몸'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싹트게 됩니다.

반면에 '너와 내가 한마음 한몸'임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일이 이해가 되고 질서와 순서가 잡힙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없어져 '네것' '내것'하는 소유욕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부모

그러나 너와 나, 자연(自然)이 전연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이 사회는 죽고 사는 문제로 만악이 횡행(橫行)하는 아수라(阿修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자'느니 '이웃을 위해 자비심을 내자'는 말들이 모두 공염불(空念佛)과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고 말지요.

3천년간 '자비를 실천하자' '이웃을 사랑하자'는 외침은 끊임이 없었지만, 과연 지금의 이 세상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찬 세계인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와 이웃간에도 이해타산만 따지는 오늘의 현실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비심과 일체감을 잃은 모습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이 같은 뿌리요 한몸'임을 실감하고 소신(所信)을 가진다면 불신의 사회에서 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랑과 자비를 아무리 부르짖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미움을 강요하더라도 사랑이 저절로 베풀어질 것입니다.

도인들의 각 어록(語錄)에도 '천지는 동근(同根)이요 만물은 일체'라는 말이 나옵

扁鵲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보사부 제조허가 제 502호 제조원 : (주)성한 앤드김
보사부 제조품목허가 제 1호 공급원 : (주)대 진 상 역

막힌 혈을 뚫고 멈춘 피를 돌게하는 무통무혈의 신비의 한방전자침

특수센서가 스스로 "경혈"을 찾아주는 전자동 전자침 (하루 20분 투자로 온몸이 편안해 집니다.)

89년 화타전자침 국내 최초개발
7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95년
"편작전자침"으로 탄생

컴퓨터가 침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양침술의 기적 "편작전자침"은 침술의 고장 중국을 비롯 미국·영국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정상비용 전자침입니다.

가정비상용 컴퓨터 전자침
살갗을 뚫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지금 !! 바로 주문 하십시요

미국·영국수출

국제 보증서로 1년간 아프터 써비스 보장

보(+), 사(−)스위치
침의 보(+) 사(−) 스위치로서 질환에 따라(+)(−)로 맞추어 사용

감도조절기
편작전자침의 핵심 기능인 침놓는 자리 (경혈)를 정확하게 찾아줌

주파수조절기

강도조절기
침의 혼수(1호~7호)

개폐스위치
전원스위치를 ON에 놓으면 탐색등에 불이 켜짐

치료버튼
극초 저주파를 경혈에 주입시키거나 경혈 탐색기능

10단 탐색등(3단적색, 7단청색)
침자리를 접근하면서 청색등이·차례로 들어와 침자리에서 적색등 꺼짐

탐색 및 치료침
살갗을 뚫지 않고 경혈에 특수전류 자극하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24K순금도금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신비의 단방비법 *

■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비의 침술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 침자리(경혈)을 스스로 찾는다 (특수센서)
- 살을 뚫지 않는다.
- 시술시 전혀 아프지 않다.(무통)
- 부작용이 전혀없다(순금도금)
- 안전하다.
-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급성질환에 직효)
-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침을 놓을 수 있다.
- AIDS나 간염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 가정상비용 전자동 전자침

- 가정·학교·직장·운동팀·체육관·헬스크럽·테니스·골프장·에어로빅

보너스 1 편작 보감 Ⅰ



-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361항의 정확한 위치 치료침환이 칼라도해로 쉽게 설명
- 침으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의 경혈이 색인으로 침부
- 전문인을 위하여 14경락법 경혈을 세계공통기호로 표시
- 총350여 질환의 비방 수록

· 칼라 4×6배판 460쪽

보너스 2 편작 보감 Ⅱ



- 전면을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질환별 경혈점 표시

· 칼라 4×6배판 192쪽

■ 비법에 수록된 비방 128가지

두통, 편두통, 조루, 고 지혈압, 위산과다, 만성변비, 동상, 당뇨병, 치통, 감기, 생리통, 불순, 냉대하, 기미, 주근깨, 알콜중독, 담배끊는 법, 정력증강, 최골신경통, 임포텐스, 설사, 위, 십이지장 궤양, 급체, 풍치, 구강악취, 편도선염, 아노증, 무릎통증, 좌절염, 팔다리의 저림 마비, 각종 열치, 어드름, 숙취, 테니스 골프엘보우, 허리통증, 좀도, 습진, 소화불량, 불면증, 콜레스테롤 등

보너스 3 실체 경혈도 3매

·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체계적 경혈 표시 · 4절지 3매

보너스 4 건강생활 대강좌

■건강강좌 유명 강사진 —



홍문화(약학박사) 유태종((식품공학박사) 한국남(의학박사)

1 자궁암·유방암 2 원만한 부부생활
3 술·담배와 건강 4 올바른 식사의 지혜
5 당뇨병, 고혈압 식이요법 6 간장병, 신장병 식이요법
· 카세트테이프 6개, 총12강좌, 자연의학연구회

보너스 5 건강교실(가정건강지침서)

1 당뇨병백과 2 고혈압백과 3 신장병백과
4 간장병백과 5 암백과 6 심장병백과 7 위장병백과
8 호흡기질환 9 관절염 류머티즘 10 자율신경실조증
*편집위원 : 홍문화, 유태종, 김경빈, 원대전 (전10권)

보너스 6 이침(耳) 경혈도2매

· 인체의 상응 부위를 그림으로 세밀히 표시
· 이침 혈자리를 정확히 감지

보너스 7 이침(耳) 사용비법 및 비방

· 편직전자침으로 이침 진단법 및 사용법 공개
· 최신 중국 이침 저방공개(금연, 금주, 이용 등)

보너스 8 편작 36 비방

·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36가지 병의 비방 공개

* 상품 8가지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

수신자 부담서비스 080-922-7777 이 전화는 받는쪽에서 부담합니다.

특별공급가 ₩158,000원
■분 할 가 ₩ 30,000 × 6회
☎전화 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VISA LG
*카드소지자 장기분할 혜택드림

구입처

■ 서울
● 서울 02)712-8711/2
● 서울 02)714-9632/3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 인천 (032)502-5533 (수원,오산 평택 안성)
● 수원 (0331)42-2908 (안양 의왕 안산)
● 수원 (0331)45-2904 (성남,하남 광주 이천)
● 성남 (0342)732-1257 (의정부 일산 파주 동두천)
● 의정부(0351)874-3174
■충청도 (대전 옥천 공산 영동 충남진역)
● 대전 (042)581-0151 (청주 충주 조치원 공주 충북진역)
● 청주 (0431)65-8180
■경상도 (부산 김해 양산)
● 부산 (051)628-2489 (대구 경산 영천)
● 대구 (053)653-0623 (울산 언양 기장)
● 울산 (0522)60-7996 (포항 구룡포 연일)
● 포항 (0562)81-2976 (경주 안강 감포)
● 경주 (0561)749-6586 (상주 영주 단양)
● 상주 (0582)34-0630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안동 (0571)52-7706 (구미 왜관 김천 상주)
● 구미 (0546)456-4600 (마산 창원 진해 충무)
● 마산 (0551)56-7685 (진주 사천 삼천포)
● 진주 (0591)746-7551
■강원도 (춘천 가평 화천 양구)
● 춘천 (0361)51-0007 (원주 횡성 홍천 제천)
● 원주 (0371)46-8260 (강릉 주문진 속초)
● 강릉 (0391)42-6830 (동해 삼척 태백)
● 동해 (0394)32-5725
■전라도 (광주 나주 목포 전남지역)
● 광주 (062)524-8110 (전주 이리 군산 김제 전북지역)
● 전주 (0652)252-8862 (여수 여천 순천 광양)
● 여수 (0662)666-2037
■제주도 (제주 서귀포 성산포)
● 제주 (064)56-3007

지 상 법 석

남을 해칠 수 없어요"

"부처님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전체와 같고 전체는 하나와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과 업장에 가려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 관계없다' 생각할때 '惡'싹트게 돼

전체와 개인 균형되게하는 지혜 배워야

니다. 道를 성취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나와 대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산천초목과 동물·식물계, 광물계가 모두 뿌리를 같이 합니다.

만물을 동물·식물·광물계로 구분하던 것이 해방 후에는 동·식물계와 광물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광물계에서 조차 유기물(有機物)이 발견되어 예전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40년~50년전에 발견한 만물의 원소(元素)내지 소립자(小粒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3천년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공유한 60억 인구

불교는 우주과학입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주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시대에 부처님의 위대성과 혜안(慧眼)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은 한사람의 피가 60억명의 혈통을 지닌 채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컴퓨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양친(兩親)의 피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피를 받았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조(祖)부모의 피를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원리로 따져 나가면 2代째는 6명의 피가 흐르고, 3대째는 14명의 피가, 10대에는 2백46명, 20대에는 1백1만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숫자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0대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은 21억 조상들의 혈통을 지닌 채 태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또한 더 오래된 40대의 조상이 있는 후손들은 1백억의 혈통을 가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의 지구인구를 훨씬 넘는 수치이지요. 물론 이 계산은 컴퓨터를 통해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세상 이웃이 나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혈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인류가 남이 아닌 수많은 조상의 피(血)가 섞여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 우랄 알타이민족의 피를 지닌 채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다 정착한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이 지구상의 60억 인구는 오랜 옛날부터 혈통이 섞여지면서 궁극에는 같은 피를 공유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향만으로 피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형제도 어릴 때 헤어지면 같은 혈육임을 알 수 없듯이 '피'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얼굴이 조금 노랗다고 흑인을 무시합니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는 못된 습(習)과 악업(惡業)을 지으면서 평생을 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일미진중 함시방(一微塵中 含十方)이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 티끌안에도 천지만물이 담겨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피 한방울에도 1백억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따르게 되면 남을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제 피를 자신이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일체동근(一切同根)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자손과 이웃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원(內園) 마당의 장미꽃 한송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만물이 총동원되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그 장미꽃 한송이입니다.

장미꽃이 씨만 심는다고 피는 게 아닙니다. 싹이 돋을려면 땅과 습기와 따뜻한 태양과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수·화·풍(地水火風)이 총동원 되어야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땅이 '지'에 해당된다면, 습기는 '수'에, 따뜻한 태양은 '화', 뿌리에 통하는 공기는 '풍'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미 한송이를 피우는 데도 작게는 지구 전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受胎)가 이뤄지는 과정도 부모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개의 정자(精子) 중의 1개가 시공(時空)의 한 순간에 적절한 환경을 만나 난자(卵子) 1개와 결합하면서 이뤄지는 것이 소중한 한 생명체입니다. 인간 역시 대우주가 총동원되어 탄생됩니다.

아름답고 생생한 내 모습은 내가 마음먹은대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우주의 총체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장미꽃이든 제 혼자 컸다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늘을 거역하는 자가되지요. 옛말에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했습니다.

장미꽃 한송이도 우주

역천자는 사리(事理)를 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성공하겠다고 힘을 내세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지의 질서에 어긋나면서 살기에 결국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는 교통질서를 어기며 길을 건너다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내몸 하나가 질서를 어기면 이 사회 전체의 질서가 어긋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콩가마니 속의 콩 하나가 썩으면 가마니 전체의 콩이 썩는 이치와 같지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더불어 사는 모든 이를 나락(奈落)에 빠뜨린다면 이 책임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나는 나요 너는 너'라는 인식은 옳지 않습니다. '천지가 동근이요 만물이 동체(同體)'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전체와 다름이 없고, 전체는 하나와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과 업장(業障)에 가려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와 개인을 균형되게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이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데로 돈을 쓰고 사는 것은 전체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삶이 방탕하게 되면 드디어는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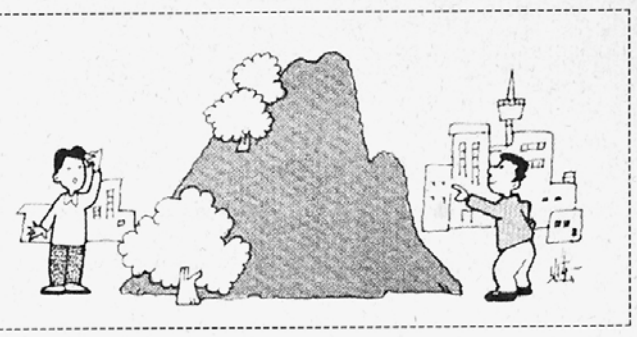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의 공륜(公倫)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전체와 개인을 위해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주위를 건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만 편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위부터 먼저 편하게 해주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에 지나가는 개미도, 가마니 속의 콩도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시야가 좁고 생각의 폭이 얇기에 개미, 쥐, 곤충 등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지만 생태학이나 환경론에서는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속의 세균 하나, 티끌 하나도 남을 편하게 존재케 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만을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악이 '천지가 한마음 한몸'임을 모르는 사실에서 일어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바른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一切萬物이 是我體요
自他主客이 本是無로다.
일체만물이 내 몸이요
나와 남과 주관과 객관이 본래 無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8

양 형 진

파동과 입자

모든 물체 두가지 성질 함께 지녀

이분법 고집하면 부분만 보게 돼

얼마 전에 도봉산을 다녀온 일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도봉산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느 방향에서 그려야 하는가? 서울 쪽에서 그린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의정부 쪽에서 그린 그림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그림이 진짜 도봉산 그림인가?

오늘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물리학에서의 많은 물체는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나름대로의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따라 그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적 속성에는 에너지라든가 속도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물체 자체가 운동함으로써 그 물체에 수반되는 여러 속성이 같이 이동한다.

그러나 파동의 경우에는 좀 다른 특성이 있다. 물체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이동하는 것을 파동이라 한다. 이 에너지 전달의 역할을 맡는 물체를 매질이라고 한다. 가령 말하고 듣는 것을 생각해보자. 말한다는 것은 성대를 울려서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는, 즉 성대에서 공기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 에너지가 공간을 타고 흘러가다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듣게 한다. 이 과정에서 성대에 있던 공기 분자가 상대방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오직 공기의 진동 에너지만이 전달된다.

따라서 파동 현상에서의 매질은 입자인 돌덩이와는 달리 오직 진동 하기만 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잘 익은 가을 논의 이삭들이 출렁일 때, 벼 이삭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삭의 물결이 에너지로서 전달되는 것과 같다. 이상이 고전 물리학에서의 입자와 파동에 대한 설명이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실제로 뉴턴은 빛을 입자로 생각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무지개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뉴턴의 명성을 따르던 많은 물리 학자들도 오랫동안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영(Young)이 빛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간섭실험을 한 후, 물리학자들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맥스웰이 완성한 전자기학에 의하면 빛은 전자기 파동이다.

이처럼 고전물리학에서의 대상은 파동이 아니면 입자여야만 한다. 어떤 물체가 입자이면서 파동인 경우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동과 입자에 대한 물리학에서의 이해는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라든가 프랑크의 흑체 복사 이론, 콤프톤 효과등에 의하면 빛은 입자성을 가져야 한다. 이 입자를 광자(photon)라고 한다. 그러나 영의 간섭실험등도 엄밀한 사실이므로 빛이 파동성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파동으로만 이해되었던 빛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빛은 물리학에서 이중성이라고 부르는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빛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빛만을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미시 세계의 모든 물체는 이러한 이중성을 예외없이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파동으로 생각하였던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며, 입자라고 생각하였던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에서 어떤 물체가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묻는 것은 잘못이다. 고전물리학에서 처럼 물체가 입자 아니면 파도인 것으로 양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에서는 고전물리학에서의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빛이나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다. 입자의 세계와 파동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용융되어 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이제 양자역학을 통하여 입자라든가 파동이라는 개념을 고집하는 한 기본 물체의 진존재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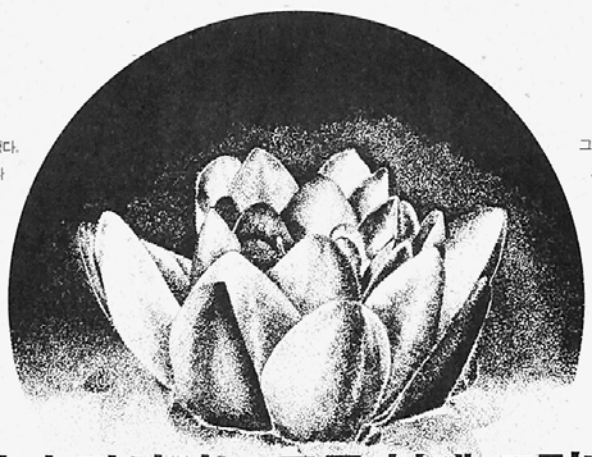
어느 그림이 도봉산을 그린 진짜 그림인가?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31

두 석불

남각이 갈대정사로 내려와 다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안 이곳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잔재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유목민 한 동아리가 그들이 우세두세 머물었던 곳에서 떠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 약간 낯선 새로움으로서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파도는 언제나 그대로 파도치기를 그치는 일이 없었고 파도소리는 언제나 이곳 사람들의 관심없는 귀에도 들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갈매기의 그 탁한 음성도 파도소리 속에 점철(點綴)하고 있었고 바위모서리와 갈대정사 지붕은 온통 갈매기 똥으로 하얏거리고 있었다.

그런 갈매기도 이곳의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져서 어떤 때는 합덕이 후원에서 나와 멀리 검은 톱날파도로 된 수평선 쪽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어깨에 앉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합덕은 숨을 죽여 그 갈매기가 날아갈 때의 그 힘을 주는 발가락의 바닥을 느낀 나머지 가만히 서 있어야 하였다. 저쪽에서 다른 갈매기가 날쌔게 파도 위를 찍고 솟아오르는 것과 함께 그녀의 어깨에 앉아있던 갈매기도 그녀의 어깨에 힘을 주어 날아가 저쪽 파도 위를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 몸에도 날개가 있다면…" 하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녀가 그녀 옆에 와 있다가 "이미 합덕스님의 마음에는 두 날개가 달리지 않았습니까"하고 가만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파도소리에 묻혀 합덕의 귀에 들어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음을 주고 말았을 뿐이다.

우녀가 좀더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저…" 이 말에는 합덕도 "좋은 날이고저…"라고 호응하는 것이었다. 우녀가 합덕에게 새로 정색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나 아까 입정(入定) 중에 허깨비 하나를 보았어요."

"허깨비라면?"

"망상(妄想)이었지. 나도 별 도리가 없어요. 요즘 이런 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마치 건달사내한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지난 날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그 예성강 나루터 건달이 오늘의 망상으로 바뀌었을 따름…."

"그 허깨비 말씀인데요?"

"아…내가 무념(無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허깨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시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었다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겠지… 내 공부가 잠의 마군(魔軍)에게 먹혔다면… 어쨌거나 그 허깨비란… 바로 저 꼭대기 움막 너머 동쪽 비탈의 어딘가에 한 사람이 우뚝 일어서는 것을 본 것이지… 그것이 허깨비란 말이오."

"스님! 우리 거기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합덕이 그의 눈동자의 흑진주 같은 빛을 뿜어대며 이제까지 전혀 그런 적이 없는 발랄함으로 우녀에게 촉구하는 것이었다.

우녀 쪽에서도 기이하게 여겼다. 언제나 수동적인 아름다움일뿐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 무의지가 바로 그녀의 의지라고 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합덕이 한번도 내보인 적이 없는 적극성을 내보여서 마치 그녀가 마당의 꽃을 보고 그때까지 수놓던 꽃의 수틀을 버리고 달려나가는 것 같은 발랄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요. 꼭 가고 싶다면 낮공양을 마친 뒤 다녀옵시다."

"우리 두사람만 갑니까?"

"그래요. 남정네들이야 파도소리를 법문(法門)으로 들으라 하지."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전혀 없음이라(至樂無樂)

이런 말을 어느 바보가 남겼던가. 무욕도의 파도소리에 즐거움이 없다는 법문을 지극한 즐거움의 법문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누구인가. 인담인가, 아니면 불이인가. 그들이 아니거든 남작이란 말인가.

어쨌거나 오후의 작무시간에 앞서 우녀와 합덕은 그들의 키보다 긴 참나무 막대기를 들고 숲속의 침침한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에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마치 여기저기서 망을 보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있었다.

"새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좋겠어요" 라고 합덕이 최근 이상하리만치 요염해진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말하였다. 그러자 우녀가 그녀의 푸른 빛깔의 인상으로 막았다.

"네놈들도 막 방선을 한 모양이구나" 라고 농담을 던진 우녀는 무심코 그 움막 뒤로 가더니 거기서 푹 빠지는 낙엽더미 아래로 내려갔다.

합덕도 아무런 말 없이 따라서 그곳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먼저 막대기로 짚어보고 가는 내리막길이 되었다.

"이쯤이겠는데…" 라고 우녀가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셔요?"

"내가 본 허깨비 거처 말이요."

우녀가 그 일대를 살피고 있는 동안 합덕은 거기서 푹 내려앉은 숲 위로 멀리 서산 안면도 일대가 오래동안 누워있는 노인처럼 가로놓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죽은 남편이나 그녀를 사모하던 사나이를 떠올렸다.

그러다가 그 서산땅의 한 지점에서 똑바로 이 무욕도 꼭대기와 어떤 일로 직결되고 있는 등고(等高)의 높은 곳에 그녀의 시선이 멈추었다.

그곳의 높은 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한없이 보내고 있는 신호라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가슴 속 박동이 쿵쿵거렸다. 문득 이쪽을 살펴보았더니 무욕도 꼭대기 아래에 좀 어긋난 높은 곳과 저 육지의 높은 곳이 서로 일치되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을 합덕의 지난 시절의 기억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곳은 태안에서 실컷 남쪽으로 내려간 장기촌 뒷산에 해당하였다. 어린 시절의 합덕이 아버지 등에 업혀서 올라갔던 산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지내는 것이었는데 그날만은 웬일로 맑은 정신인 채 어린 딸을 업고 나선 것이었다.

장기촌 일대는 백제시대의 석불이 여기저기 밭두렁에도 함부로 박혀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륵님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서방님이라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른 그다지 높지 않은 산꼭대기에는 그곳의 지세(地勢)와는 상관없이 아주 험한 벼랑에 새겨진 한 불상이 있었다. 그 불상의 정방향(正方向)은 서쪽 바다 멀리 한 섬 꼭대기의 어느 곳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오늘의 이 무욕도 꼭대기 동쪽이었다.

합덕의 뇌리에는 번개가 스쳐갔다.

"스님!"

아래쪽의 우녀가 "왜?"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이 벼랑을 돌아내려가면 어떨까요?"

"그럴까? 그럽시다."

그들이 힘겹게 낙엽이 쌓인 비탈을 내려가자 거기 벼랑 앞에 한 돌덩어리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 본즉 그것은 그냥 서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석불이었던 것인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마모되거나 풍화되어서 얼굴 형상도 옷주름 무늬도 알아볼 수 없는 일그러진 돌덩어리가 되고 있었다.

"부처님이신데"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덕은 흥분한 상태로 말소리가 마구 떨렸다.

그녀의 전혀 달라진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어린 시절 장기촌 뒷산의 마애불상과 이 섬의 석불은 아침에는 이곳의 석불이 햇빛에 비쳐서 나타났고 저녁에는 장기촌 뒷산의 그것이 저녁 햇빛에 비쳐서 그 모습을 멀리 이곳의 석불이 바라보게 하는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사이였음을 알아냈다.

합덕은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석불을 우녀가 그곳에 있거나 말거나 온몸으로 꽉 껴안고 한동안 서 있었다.

"합덕스님! 이제 돌아갑시다."

합덕은 우녀의 말에 늘 그러는 것처럼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저는 이 부처님의 어떤 내력을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 석불과 저 육지에 새겨진 마애불은 서로 마주 보고 있도록 옛 백제시대의 어느 사랑하는 남녀가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바를 이 부처님을 조성함으로써 기념한 것입니다."

"과연 허깨비로군!"

우녀가 냉엄하게 쏘아댔다.

하지만 합덕은 그런 우녀의 위엄에 구애되지 않았다.

"부처님의 법이 어찌 애욕을 버린 출가자의 것일 뿐이리. 한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슬프디 슬픈 애욕까지도 그 법 안에 아우르고 있어야 할 것을."

"합덕스님!"

우녀가 그녀의 푸르른 눈길로 합덕의 씨워진듯한 어떤 도취상태를 쏘아댔다.

"합덕!"

드디어 고함소리에 가깝게 크게 불러댄다.

그때서야 합덕이 "꼭 이 돌부처님은 우리 대중 가운데서 남각스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녀쪽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서 돌아갑시다. 내 망상이 이제 도반(道伴)에게 옮겨가서 더 큰 망상으로 되었어!"

우녀가 합덕의 팔을 잡아 이끌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나눌 처지가 아닌채로 꼭대기 움막을 허겁지겁 지나쳐 아래로 내려갔다. 소나무 숲에는 올라올 때의 새소리 따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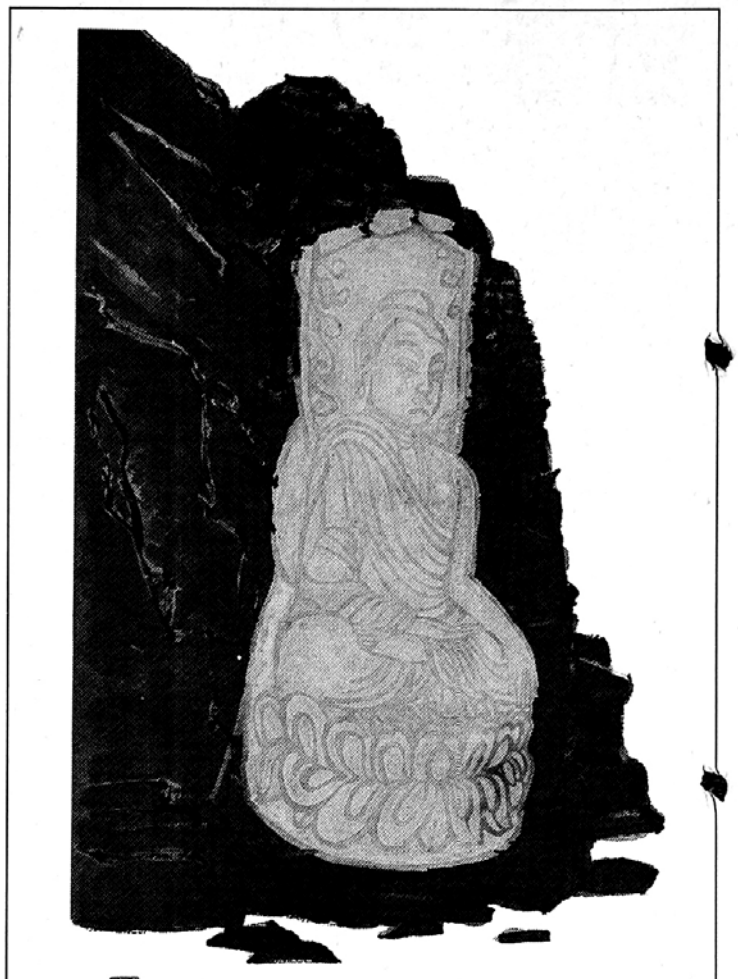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이 석불과 저 육지에 새겨진 마애불은 서로 마주 보고 있도록 옛 백제시대의 어느 사랑하는 남녀가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바를 이 부처님을 조성함으로써 기념한 것입니다" "과연 허깨비로군"

"장기촌 일대는 백제시대의 석불이 여기저기 밭두렁에도 함부로 박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륵님 이라고 하였다."

1969년, 월북을 기도하다 휴전선에서 사살된 한 젊은 스님의 충격적 구도소설 !

下山

이·홍·주·스·님·장·편·소·설

젊은 수행자의 고뇌와 파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

1969년. 유난히 키가 크고 바짝 여윈 한 젊은 스님이 민통선 철책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월북을 기도했던 홍주 스님의 걸망 속에는 자신의 소설 <下山>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홍주 스님은 왜 월북하려 했을까? 스님은 왜 자신의 소설 <下山>만을 북한 땅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어떻게 스님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금서로 묶였던 문제의 소설 <下山>은 28년 만에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지은이/이홍주 스님

회제작 <下山>에 주어진 문학적 평가

- 작가가 직면했던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의의 모순과 갈등이 어실히 표현되어 대담하게 던져진 문제작 ! — 1967년/시인 趙芝熏
-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의 고뇌상이 절절히 묘파된 본격적인 불교 전위 문학 ! — 1967년/작가 金東里
- 스님들과 산사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묘사력이나 삶에 대한 긴 사색의 진주알 같은 대화들이 독자를 사로잡는 구도소설 ! — 1995년/문학평론가 임헌영
- 구도승의 타락과 고뇌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한국 불교에 경종을 울린 소설 ! — 1995년 5월 28일/한국일보

불지사 편집부 (02) 277-2676 영업부 (02) 263-1941
4×6판/양장제본/248쪽/값 5,500원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풀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반이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게송에 맞는 경전 속의 적절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출판 운 주 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02) 720 - 9372 · 3 FAX (02) 723 - 0646

알 림

鏡峰 大禪師 제 13週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95년 6월 24일
(음 5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 : 통도사 극락선원

■연락처 : 0523)82—7083 7950

1995년 6월 일

통도사 극락선원



재일 홍법원이 자리를 잡아가며 행원스님은 일본의 각종불교행사에 초청돼 한국불교를 알렸다. 사진은 국주회에서 모인 한·일스님과 신도들. 첫 줄좌에서 세번째가 행원스님, 녹원, 혜정, 월탄, 혜성스님등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인다.

셋방법당 청산…홍법원 개설

日 여신도 발원 시주…불공하며 융자금 갚아

"조총련과 손잡았다"모함 '남산'의 조사 받기도

숭산 스님 ③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3Y

지구촌 전법이야기

"행원스님 계세요"
"누구시요"
"저, 고바야시예요"
고바야시 보살은 행원스님을 찾아와 한국의 참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참선을 배우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행원 스님의 일본 포교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그녀는 스스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을 행원스님과 인연 지어주는데 적극적이었다.
어느날 고바야시보살이 두 명의 교포 여인을 데리고 왔다. 나까노상과 노야마상이 그들인데 그 두 한국 교포는 일본에서 한국 신도가 모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사람들이 모이니 법회도 잘됐다. 참선이란 무엇인가. 왜 하는 것인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주로 참선과 관련한 주제로 법회를 이끌었다.
"스님,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도들이 먼저 제의한 것이 큰 절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지만 아직 경제력이 닿지 않으니 좁은대로 지냅시다. 법당이 크다고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편히 앉아 참선도 하고 법문도 들으려면 큰 곳으로 옮겨야 해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노야마상이 나서서 큰 절로 옮기는 일을 추진해 보겠다더니 어느날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스님을 찾아왔다.
"제 남편이 3백만엔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큰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원스님은 신도들의 성의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을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해서 새롭게 전법의 터전을 잡은 곳은 동경의 문경구 충일이란 곳이었다. 고오라갱야구장 뒤편에 제법 큰 집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1천5백만엔이나 있어야 구할 수 있었다. 노야마상의 남편이 시주한 3백만엔을 한국은행에 넣고 1천5백만엔을 융자 받아 그 집을 인수했다. 일본으로 건너와 셋방법당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홍법원(弘法院)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수리할 곳이 많았다. 2층의 그 집은 상하 70평이었고 윗층의 다다미방 6개를 다 터서 법당으로 만드는데만 75만엔이 들었다. 수리비는 나까노 보살이 냈다.
어쨌거나 새로운 법당이 마련됐다. 어수선한 일본 불교에 본격적으로 한국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법당이 생긴 것이다.

든든한 식구 유학생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이 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성(見性)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행원스님은 신도들과 기쁨을 나누며 다시금 포교 사업의 힘겨움과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홍법원에서의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신도들의 집을 찾아가 불공을 해주지 않으면 융자금을 갚을 길이 없었다. 홍법원에서는 참선법회를 계속 열어 갔으며 신도들도 늘어났지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여러명 찾아왔다. 인환스님(현 동국대 교수)이나 김지견법사(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영자씨(현 동국대 교수)등이 홍법원에 인연을 맺어 유학생활을 했다. 그들은 행원 스님에게 있어 든든한 식구들이기도 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불교는 귀족적인 것과 화려한 의식을 중아했다. 그런 영향때문에 행원스님의 초기 전법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홍법원을 세운 뒤로는 독자적인 법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홍법원이 안정되려 할 때쯤 행원스님은 매우 언짢은 모함을 받았다.
'행원스님이 조총련으로부터 2천만엔을 받아서 일본에 절을 지었다'는 터무니 없는 모함이었다. 그것도 일본이 아닌 한국의 정보부에 그 모함이 직접 전달된 것이다.
당시 서울의 '남산'이라면 무서운 곳이었다. 군사정권 아래의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별칭되고 있었는데 그곳은 왔는데요, 일본서 조총련과 손을 잡았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오"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지요. 스님"
"아는 것이 없으니 투서한 사람에게 자세한 내막을 들어 보시구려"
그 직원은 결국 스님의 요구대로 투서한 사람과 그 내용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모함이오. 내게 증거가 있으니 보시겠소"

다른나라 가는 길 열려

행원스님은 일본 홍법원을 사기위해 은행 융자를 얻은 영수증등을 보여주었다.
결국 '남산'의 직원은 "그럴줄 알았어요…"라며 돌아가고 말았다.
이같은 모함이 생긴 것은 일본내에 불교를 이용해 발판을 세우려는 재가자들의 장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실패했다. 일본에 가서 투서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행원스님은 시치미를 떼고 사정 얘기를 했다.
"이런 때려 죽일놈이 있습니까. 어떤 놈이 스님을 그런 지경으로 모함했답니까…"
투서한 장본인의 흥분된 목소리가 오히려 측은하게 들렸기 때문에 행원스님은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일본 홍법원은 계속 번창했다. 제자들은 참선을 곧잘 했으며 몸과 마음에 수행자의 티를 갖고 있었다. 각종 행사나 단체의 모임에서도 행원스님을 초청했다.
2차 대전후에 생겨난 신흥종교와 전통불교의 혼돈 속에서 한국의 선불교를 전하는 일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현자의 장 *
근심과 기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이 향 원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났다!

이야기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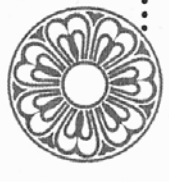
이·야·기·로·풀·어·쓴·부·처·님·의·전·기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생과 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버린 진정한 해탈을 가르쳤던 석가.
그의 구도의 생애와 진리의 가르침을 여기에 집대성 한다.

김형중저 • 280면 • 5,500원



이·야·기·로·풀·어·쓴·현·우·경

코끼리의 눈물

부처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솝이야기?

〈현우경〉의 내용을 22가지의 재미있는 우화로 풀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안델센의 '이솝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는 불교우화집!!

고우익저 • 212면 • 5,000원

이·야·기·로·풀·어·쓴·숫·타·니·파·아·타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전〈숫타니파아타〉중에서 주옥같은 법문만을 골라 말씀을 편안하게 풀어 놓았다.
살아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석가의 깊은 성찰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요한 깨달음을 준다.

이학송저 • 272면 • 5,5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원빌딩 밀알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

출 판

제원스님 에세이집 '그래서 독신…' 출간



불교방송의 인기 시사프로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길음복지관 관장)이 에세이집〈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를 펴냈다.

이 책에서 제원스님은 고적한 산사의 산길을 닮은 정감어린 글과 큰 정치를 위해서는 군살을 빼야한다는 다끔한 충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옆에 있는 행복찾기의 글, 무소유의 가치 등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언어를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 도서출판 이목 펴냄, 6천원.

임현담씨 구도기행 '히말라야…' 출간

'인도 미치광이' 임현담씨의 구도기행문〈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가 효형출판사에서 나왔다.

방사선과 의사인 저자가 '삶과 죽음의 땅' 인도를 네 차례나 떠돌며 느낀 점을 서술한 종교철학적 구도기라는 점에서 단순한 여행기 또는 성지순례기와 차별을 두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불교 시리즈' 밀알서 출판

"신세대에게 부처님 말씀을"

"불교는 어렵다" 고정 관념 탈피 '재미있는 불교'로 인식전환 계기

불교는 더이상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며, 결코 어려워서는 안된다. 불교의 중심은 붓다의 삶이며,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붓다의 이야기가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밀알에서 펴낸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쉽게 붓다의 종교적 철학적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꾸며 '불교는 어렵다'라는 관념을 '재미있는 불교'로 바꾸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청소년 불서가 빈약한 불교출판의 현실에서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1차로 펴낸 시리즈는〈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코끼리의 눈물〉〈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등 3권. 편저자는 모두 종립학교 교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중(명성여고) 고우익(능인고) 이학송씨(광동여고)이다. 교육현장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직접하는 대신 경전 속에서 건져올린 빛나는 진리의 세계로 눈돌리게 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은 부처님의 출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생애를 일대기적으로 기술한 전기. '위대한 탄생'부터 '장엄한 열반'까지 모두 12장으로 구성하고 일화와 사건들을 적절히 배치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흥미있게 이해하도록 했다.

〈코끼리의 눈물〉은 불교의 인연이야기를 모은 현우경 가운데 22편을 가려 뽑아 이야기하듯 쉽게 풀어썼다. 각각의 이야기 끝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 정리했다.

〈살아있는 모든것은…〉은 이야기로 풀어쓴 숫타니파타라 할 수 있다. 각장마다 숫타니파타의 경구를 인용하고, 이어 그에 관한 예화나 우화 게송 등이 소개되면서 삶에 대한 성찰로 이끌고 있다.

이미 부처님 일대기와 현우경 숫타니파타를 내용으로 하는 불서출판은 여러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이전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밀알은 20권 분량으로 '청소년 불교이야기' 시리즈를 출판 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만다라총서 20권 나왔다

불교시대사, '서양에서 본 불교' 펴내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의 불교학 기획시리즈 '만다라총서'가 92년 4월〈세계의 종교〉를 첫권으로 펴낸 이후 최근〈서양에서 본 불교〉를 펴내 20권을 기록했다.

불교 또는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체계적 정리를 기획목적으로 펴낸 총서 가운데〈세계의 종교〉〈현대인의 불교학〉〈대승불교총설〉은 원광대 감신대 등에서 교재로 사용, 불교학·종교학 연구에 기여했다. 불교시대사는 계속해서 계율과 법화 정토 열반등 각 종파의 사상을 고찰하는 시리즈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순서	도서명	저자	역자
1	세계의 종교	유다 유타카	진철승
2	부처님의 생애	미야사카 유소우	안양규
3	불교사의 전개	와타나베 쇼오꼬	한경수
4	근본불교 이해	마스다니 후미오	홍사성
5	대승불교총설	가나오까 수유	안중철
6	불교사회경제학	오노 신조	박경준·이영근
7	불교사회복지학	모리나가 마쓰노부	이혜숙
8	현대인의 불교학	야마구찌	정병조
9	부처님의 가르침	마스다니 후미오	권집부
10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와쓰지 데스로우	안승준
11	불교교리개론	가네코 다이에이	고명석
12	세친의삶과 사상	사이구사 미쓰요시	송인숙
13	용수의 삶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	이재호
14	화엄불교의 세계	프란시스 쿡	문찬주
15	새롭게 쓴 선종사	오키모토 가쓰미	사토오 시게키
16	불교정치사회학	나카무라 하지메	차차석
17	상좌불교의 가르침	붓다다사	강진아
18	현대와 선	니시타니 게이지 외	김호귀
19	불교의 효 유교의 효	미치하타 료슈	목정배
20	서양에서 본 불교	미네시마 히데오	김진기

'생명민회 토론집' 발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크리스찬아카데미 생태사회연구소 등 범종교 및 환경운동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에서는〈생명민회 토론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김지하씨와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씨의 생명민회 결성제안문과 '생명가치의 구체화를 위한 방향' '생명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제' '농업의 생명가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문의:불교환경교육원(765-6324)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2	어린이 불교	능관 외	역경진흥회
3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4	불교성전	편성회	역경원
5	삶에서 깨어나기	틱낫한	불지사
6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7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8	미란타왕문경	이시카비 요시오	현암사
9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조계종의 정혜결사와 천태종의 보현결사. 고려후기 무신정권에 대한 교종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불교계에서는 동시에 두 결사운동이 발생했으나 보현결사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진정국사와 호산록 허흥식 지음

13세기 천태종 결사정신 규명

〈진정국사와 호산록(湖山錄)〉은 고려후기 천태종 계통의 결사인 만덕산 백련사 결사의 제4대 법주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책)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시문집인〈호산록〉을 역주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진정국사가 살았던 13세기 천태종의 결사정신과 지성사의 단면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 전해지는〈호산록〉을 송광사본과 일지암본 등을 대조해 복원을 시도했다. 부록으로 일지암본〈호산록〉을 실었다.〈민족사, 1만5천원〉

불교는 옛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현실의 기쁨과 고통과 슬픔에 어우러진 불교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교사의 과제이다.

〈한국불교사 산책〉은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살다간 옛사람들이 현실의



한국불교사 산책 김상현 지음

선조들 삶속의 불교모습 밝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왔으며, 특히 불교는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제1편 한국불교사 이야기, 제2편 한국불교사 소묘, 제3편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등 3편으로 구성됐다. '조선불교 사회'에서는 한국불교사 연구의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조선후기 불교 수난과 극복, 불교인들의 개화활동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불교연구원 회보' '천태종보' 등에 연재한 글을 묶어 다소 통일성이 떨어진다.〈우리출판사, 7천원〉

망자의 저승길(冥路)을 밝혀주는 등불을 영가법문이라 한다. 예부터 영가법문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직접했다.

선승이라 해서 중생의 삶과 멀었던 것이 아니라 영가법문을 통해 중생들을 제도했던



영가천혼법어 석성우·김규대 엮음

선지식들 영가법문 한데 묶어

것이다.

〈영가천혼법어〉에서는 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로 부터 백장 대각국사 근현대 한국불교를 빛냈던 경허 효봉 성철등 50여명 스님의 영가천도 법문과 제문 영결법어 만장 등을 어록과 여러 문집에서 가려뽑아 실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조사불교의 새로운 모습, 즉 영가의 천도까지도 선사들의 몫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문을 남긴 스님들의 약력과 출전을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토방, 1만5천원〉

문 화

보르헤스 작품 세계 화엄사상이 '모티프'



◇보르헤스

"포스트모더니즘등 20세기 중·후반의 모든 인문과학 사조는 보르헤스로부터 출발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그의 문학은 불후의 저작들로 가득차 있다. 그는 아마도 화엄경의 시·공간 상호관통의 세계관에서 문학적 아이디어를 빌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알레프' 불교적 사고 녹아 '불교입문'도 저술

문학평론가 김홍근씨는 지난 9일 백화도량(상임법사 김호성)이 마련한 '스페인어 문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불교입문〉이란 책을 쓴 적도 있는 보르헤스는 모든 사물의 상호관련을 강조하는 화엄경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잘 요약한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하나 속에 모두가, 모두 속에 하나가 있다(一中一切 多中一)'는 귀절에서 단편〈알레프〉에 나오는 무한 시공간체로서의〈알레프〉를 상정하게 됐다는 것.

53명의 선지식(善知識)에게 법을 구한 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선재동자 앞에 펼쳐지는 장엄세계는 우주의 모든 사물·사건들이 그 자체에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알레프와 흡사하다는 설명이다.

'20세기의 창조자'로 불리우는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주로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단편소설집〈픽션들〉(1944)과〈알레프〉(1949)로 전세계적 명성을 획득했다. 대표작으로〈모래의 책〉등 소설을 비롯, 10여권이 넘는 시집과 에세이집〈토론〉〈또다른 심문〉등이 있다.

목아 박물관 2주 '불교 소품전'

미공개 유물 70여점…내달 16일까지



◇김영원 作 공허 에너지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이 지난 12일 개관 2주년을 맞아 '불교소품' 기획전을 마련,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들 가운데 70여점의 불교관련 소품들을 7월16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불교소품전에는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촛대 휴대용 벼루 목탁 소반 범종, 운판등 공예품 및 생활용구등이 주류를 이루며, 전비(殿碑)나 불자(拂子)등 불교의식 용구들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의 일환으로 월간〈불광〉과 공동주최한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황이슬양의 대상작품을 비롯 당선작들이 전시된다.

장학기금마련 만다스님 시화전

18일까지 대전시민회관

불우청소년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만다스님의 시화전이 오는 18일까지 대전 시민회관 2층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시집 '땡초의 오도송'으로 잘 알려진 만다스님의 이번 전시회에는 '성철대종사' '오도송(悟道頌)' '무욕'등의 시화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찰흙 이색 전시회

대불련 제주지구

찰흙을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색전시회 '부녀가 만든 부녀님연'이 지난 4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김찬희) 주최로 열렸다.

'정토세상을 서원하며'라는 부제와 함께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살바기 아기부처부터 가부좌를 틀고 있는 부처, 고뇌하는 부처등 고등학생·대학생·스님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1백 50점의 불상이 선보였다. 이밖에도 염주 목탁 연꽃 촛대 보리수등 불교 상징물도 전시됐다.

중생들의 소망에 다양하게 응신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다채롭게 표현됐다.

'불교문예' 작품공모

현대불교문학회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스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들의 불교문학 작품을 공모한다.

〈불교문예〉신인상 작품공모는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문학 부문에 걸쳐 공모되며, 당선작가는 기성문인으로 문단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02)308-9520

'일제 문화말살정책 도록' 발간



독립기념관이 광복50주년을 기념하는〈일제의 한민족 문화말살정책 특별기획전 도록〉을 발간했다.

지난 달 2일부터 7월30일까지 열리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특별기획전'에 전시중인 각종 유물·사진·도서·신문자료 등을 분류, 도록으로 만들었다.

수안스님 서화전

24일부터 경남문화회관

경남 한산사 요사채 건립을 위한 수안스님 선서화전이 오는 24일부터 경남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재단법인 한산사 불자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월하스님의 병풍, 도예가 이공한선생의 황매산 매화, 묵선자 박지명선생의 금사 금강경등이 찬조출품된다.

전통소재 그림전

경주 선재 미술관

선재미술관(경북 경주시)은 8월6일까지 우리 전통과 현대미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전통과 오늘의 작품전'을 연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이나 고지도 글자 무속 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온 작가 21명의 작품이 소개된다. 동양화가 길기창 서세욱 이종상씨의 작품도 선보인다.

액운을 막고 행운을 주는
신비의 황금부적

무병장수 만사대길 符篆



• 순금 3.75g
• 순은 18.75g(순도 99.9%)
₩ 148,000



■ 장원합격부
각종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데 영험 있는 부적
• 대입수능시험수험생
• 고입학력시험수험생
• 취직시험준비생
• 각종 자격시험 준비생



■ 사업득재운부
사업번창과 재운을 좋게 하는 데 영험이 있는 부적
• 사업하시는 분
• 사업을 시작하실 분



■ 동련무사고부
차운전사고나 공장 안전사고 건설공사 사고 등 각종사고를 방지하는 데 영험이 있는 부적

상담처 : 삼전불사 (02) 735 - 5293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氣띠부적 메달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님의 천지인의 氣로 천운의 길로 돌려놓은 氣부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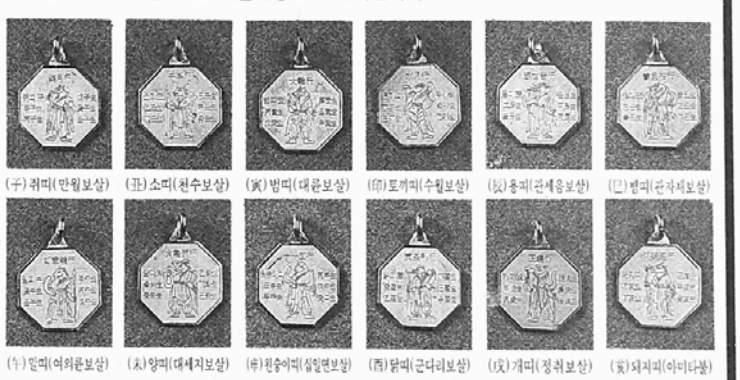


앞 (운명보살)



뒤 (띠십이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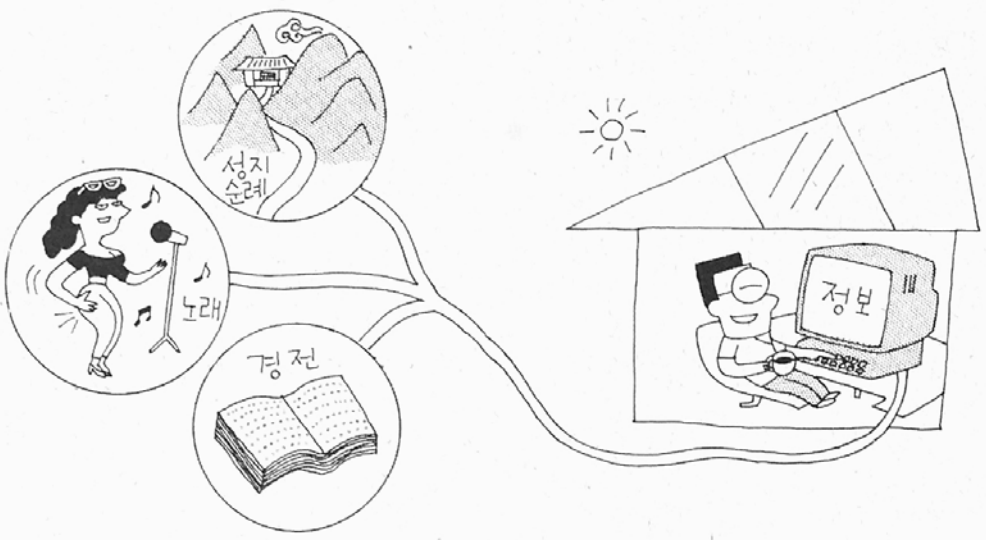
부적 천운을 천지인의 만나는 인연



(子)쥐띠(만월보살) (丑)소띠(천수보살) (寅)범띠(대륜보살) (卯)토끼띠(수월보살) (辰)용띠(관세음보살) (巳)뱀띠(관자재보살)
(午)말띠(여의륜보살) (未)양띠(대세지보살)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酉)닭띠(군다리보살) (戌)개띠(정취보살) (亥)돼지띠(아미타불)

■ 순은(99.9%) 18.75g (체인포함) ₩ 48,000

6월은 정보문화의 달 … 불교전산화 오늘과 내일



초파일 성지순례 화상회의 열어 컴퓨터 불교회원들과 대화

2000년 5월 불자 L씨의 하루

잠들기전 '한글대장경' 프로그램에 들어가 숫타니파타 경구를 독송

불기 2543년, 그러니까 2000년 5월. 부처님 오신날을 일주일여 앞둔 화창한 초여름의 어느 하루.

유리창 너머로 들어온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동안 관람을 미루어오던 영화 '백두산'을 본 탓에 늦잠을 잤다. 그러나 기분은 상쾌하다. 막 꽃망울을 터트린 장미향기 그윽한 아침 공기를 크게 들이마신다.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마친 L씨는 어제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주문형 자동차에 대한 답신을 보내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다.

'당신이 원하는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10%의 비용을 더 부담하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Personal Data Assistant)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력하고 고객의 ID번호로 전자메일을 발송한다. 한때 '삐삐'가 유행했던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선물이 PDA이다. 포켓북 크기의 첨단정보통신기기로, 전화는 물론 위성TV수신 팩시기능까지 갖춰져 있다.

아울러 고객이 원하는 모델의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싶으면 가상시승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서울시내에 다섯 곳이 있음을 안내한다. L씨는 새로운 주문내용이 없나를 다시 확인한다. 이것으로 그의 오전업무는 마무리된 셈이다.

이어 L씨는 그가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불교회의 부처님 오신날 성지순례 회의를 주재한다. 다자간 화상회의 장치를 이용하면 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지순례 장소와 일정, 법사스님을 결정한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됐던 통도사와 금강산의 마하연, 평양의 광법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했다. 이 세 곳의 소개는 불교정보센터의 '사찰안내'를 불러오면 된다. 스님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다.

불교정보센터는 '불교의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불교전문 정보제공회사로 한글대장경을 비롯 불교역사, 인물,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회의가 끝날 즈음 L씨와 회원들의 컴퓨터 모니터 한켠에 회원들의 투표집계가 기록된다. L씨는 곧바로 금강산 마하연의 종무소에 알려 협조를 요청했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회원들도 이 회의에 익숙하다. 벌써 매달 두차례씩 법회를 봉행해온 터이다. 컴퓨터불교회가 컴퓨터법회를 시작한지는 벌써 10년째. 처음에는 모니터에 문자로 올라온 법문을 듣는 게 고작이었다. 지금은 질문도 가능하다. 법사스님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용어 따위의 질문이 빈번한 내용은 컴퓨터에 입력된 DB(DataBase)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이 시간을 놓쳤을 경우는 예의 불교정보센터의 '오늘의 법회'를 불러오면 된다.

그렇다고 컴퓨터불교회가 언제나 컴퓨터로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매월 한차례씩 전국에 있는 회원이 모두는 아니지만 성지순례를 통해 직접 만난다. 1년에 4회 이상 참석치 않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모두 알고 있고, 이 경고를 무시하는 회원은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모든 일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로 여가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때 불교계에서는 정보사회가 되면 '신도없는 사찰'이 될 것이라며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고 있다. 사찰은 컴퓨터로 인해 생긴 사람들 사이의 고립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장소로 떠올랐다. 여전히 고색창연하고 독경과 풍경소리가 깃든 사찰은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다. 사찰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에 연결된 와이드스크린으로 순례를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 전 L씨는 회사컴퓨터에 들어가 과장의 지시를 확인하고 동료들의 안부를 묻고 메모를 주고받는다. L씨가 근무하는 곳은 미래자동차 종로영업소. 50여명의 직원이 있지만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매장 담당직원 두사람 뿐이다. 재택근무가 본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불과 5년전에 아우성쳤던 서울시내의 교통 공해문제는 그 단어조차 향수를 자아내게 할 정도이다.

L씨는 영화평론가로도 꽤 유명하다. 점심 이후 잠깐 휴식을 취한 그는 영화프로그램을 검색한다. 이 일은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신작영화시사회'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된다.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영화 '인조인간'을 보기로 결정하고 VDT 리모콘을 찾는다. 영화평론은 매주 발행하는 불교전자잡지 '현대불교'에 연재하고 있다.

VDT(Video Dial Tone)는 이미 5년전에 상용화된 서비스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전화선을 이용,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주문형 영상서비스'를 말한다.

창밖을 보니 어느덧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모임도 컴퓨터를 통해 만나지만 오늘은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의 약혼자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만남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직접 만나기로 했다. 외출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집에 돌아오니 10시가 훨씬 넘었다. 컴퓨터를 열어 외출중 들어온 통신을 점검하고 내일의 스케줄을 입력시킨다. 그리고 '한글대장경'으로 들어가 숫타니파타의 경구를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흐른다. 벌써 성지순례가 기다려진다. 마하연도 처음 가보는 곳이다. 이번에 법문을 해주실 영봉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쉬이 잠이 오지 않는다.

정성운 기자

교계 정보시대 열리고 있다

사찰총람·인명록등 10여종 DB화…PC 활용 저조

국내 컴퓨터 보급 4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교계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불교정보 DB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구축된 불교관련 DB는 '한국불교역사인물'등 10여종. 이 가운데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소장 이정)가 7개의 불교자료DB를 선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사찰총람〉에는 1910년 이전에 지어진 사찰의 위치 소속 연혁 유적 설화 참고문헌이 사전식으로 정리, 수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8백여개의 사찰정보가 추가될 계획이다. 〈한국불교역사인물〉은 고구려의 아도·순도에서 최근에 입적한 이종익박사에 이르기까지 2천여명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3천여명의 불교계 인사의 인적사항을 수록한 〈불교계인명록〉등도 PC통신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다. 불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불교의 모든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한국불교역사정보〉와 1945년 이후 출간된 모든 불교문헌을 총정리한 〈불교도서목록〉도 불교정보연구소가 제작한 불교정보DB이다. 한편 금년말까지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총람〉 CD롬을 일반에게 선보이기 위해 제작중이다. 해인사 장경연구소(소장 종림)에서도 팔만대장경 CD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93년부터 불교경전 논문 동화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불교전산원 칠엽굴(원장 지월)도 〈부처님일대기〉와 〈아함경〉을 CD롬으로 제작중이다. 그림과 상세한 설명 음악으로 구성된〈부처님일대기〉는 초심자와 어린이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아함경〉은 주제색인을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승가대학 전산원(실장 김응칠)에서도 지난해 〈경전색인일자 검색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태고어록〉과 〈보조어록〉의 DB화를 마쳤다. 올해에는 〈원효전서〉총32권의 DB화를 착수해서 연말에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PC통신 천리안과 하이텔의 불교동호회 공개자료실에도 회원들이 제작한 사찰관리프로그램등의 불교관련DB가 공개되고 있다. 또한 교계최초의 전자잡지 〈반야〉도 PC통신을 통해 제공된다.

이같은 불교관련DB 제작과 보급에 대해 승가대학 원교스님은 최근 논문을 통해 "전국 사찰에 보급된 컴퓨터는 34%로 이 가운데 신도관리(40.2%)와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서(32.4%) 활용이 대부분이다"며 "불교계 전산화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의 정보교환과 활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남수미 기자

〈불교DB 현황〉

제작소	종류	진행상황	제작소	종류	진행상황
불교정보연구소	한국사찰총람 한국불교역사인물 한국불교역사정보 불교계 인명록 불교계 도서목록	8月부터 Hinet-P를 통해 제공	불교전산원 칠엽굴	부처님 일대기 아함경	제작중
			중앙승가대학 전산원	불교경전일자검색프로그램 태고어록/보조어록 원효전서	완료 제작중 제작중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총람	제작중	해인사장경연구소	팔만대장경	제작중

인터뷰 하이텔—불교동호회 지도법사 대엽스님

2천7백여명에 컴퓨터 불교강좌


◇대엽스님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불교강좌, 신행상담을 펼치고 있다.

컴퓨터통신 하이텔의 불교동호회 대화방. 지도법사 대엽스님(안성 불자의집 주지)이 이끄는 온라인 '선재불교학습'에 참석하기 위한 회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대화방에는 12명만 초청되기 때문이다. 모두 모이자 불교학습이 시작됐다.

스님: 안녕들 하세요.

일동: 네- 스님.

스님: 오늘은 〈아함경이야기〉 두번째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시작된 불교강좌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어진다.

"불교동호회에는 매일 10여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합니다. 대부분 불교를 처음 접하고 기초교리를 원하고 있지요. 이들을 위해 불교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대엽스님이 이끄는 선재불교학습은 강좌라기보다는 컴퓨터 법회로 불린다. 경전을 통해 강의는 물론 신행상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님이 컴퓨터통신과 인연을 맺은것은 지난해 여름. 우연히 불교동호회를 소개받은 스님은 한달만에 초발심자를 위한 '불교상담실' 부시삽을 맡는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요즈음에는 하이텔 소식지 '꿈따라' 명예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스님은 선재불교학습이 끝나는 9월경 온라인수계식을 갖을 예정이다.

"컴퓨터를 통해 어떻게 수계나 법회를 봉행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말(言)을 손(手)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씨와 부호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불가나 독경등의 의식도 글씨를 쓰면서 합니다. 처음엔 생소할 지 몰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초심자는 타자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느끼지만 일반 법회와는 달리 누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강좌의 인기가 높은편이라는 스님의 설명이다. 그래서 2천7백여명의 하이텔 불교동호회 회원의 모니터를 법당삼아 법을 펼치는 대엽스님은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엽〉

탐방 불교정보연구소

"정보관리없이 불교발전 없다"
연구원 12명 밤낮 잊고 6개DB 개발

늘어나는 불교정보처리를 위해 불교방송이 지난해 설립한 불교정보연구소(소장 이정).

최근 불교방송 자료실에 자리한 연구소가 부쩍 바빠졌다. 개소 1년만인 오는 8월1일부터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자체 정보유통망 '한국불교정보'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정보 가공과 유통의 시대로 정보관리 없이 불교발전없다'는 것이 불교정보연구소의 확신.

따라서 연구소 산하에 조사분석팀을 비롯 정보처리, 전산개발, 업무지원등 4개 팀 12명의 연구원이 밤낮을 잊고 정보가공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그동안 6개의 불교관련 DB를 개발하고 최근 2단계사업으로 불교용어사전, 한글대장경, 경전인물사전, 교계설법 서비스등의 DB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가운데 90년부터 스크랩한 교계신문, 일간지의 불교관련 기사 자료는 완벽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교계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가 이미 개발을 완료한 불교 DB는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에 제공, 이용자들로부터 매달 1백만원가량의 이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재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관련 도서가 1만5천권, 여기에 그동안 모아놓은 정보가 7만건에 이르러 불교정보연구소는 명실상부한 불교정보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종교계뿐 아니라 방송계로는 최초로 국가공공 DB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화제를 낳기도 했던 불교정보연구소는 앞으로 전국사찰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불교계가 첨단포교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소 박규태 상임연구원은 "정보화시대에는 DB등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이 갖추어 졌느냐가 관건이다"며 "재정지원은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 선보인 불교관련 DB를 많이 이용해 질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엽〉

모든 사찰에서 마이크 性能을 시험해 볼 기회를 드립니다.

유코전자의 고성능 마이크는 각종 법회 봉행, 설법전용 마이크로, 단 한 개라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작은 음성도 잘 들어가는 흡음력으로 큰스님, 원로스님들께는 꼭 필요한 마이크라고 감히 권해드립니다.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설계한 작품이오니 사용해 보십시오.

전국 사찰의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 혹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3년 保證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 공급가 : 180,000원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리서 잘 들어갑니다.



설법 전용 최고급 YD-675 다이나믹 마이크
• 공급가 : 90,000원
YD-675 마이크는 '삐-이'하는 하울링 영향 없이 부드럽고, 맑은 소리로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마이크입니다.

V-606LC
설법용 고급 마이크
• 공급가 : 65,000원
V-606LC 마이크는 규모가 작고 좁은 법당에서 '삐-이'하는 하울링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입니다.

스튜어트 Stuart® 등록상표
상표등록 제135828호 의장등록권 제94-18883호

유선 핀마이크



T-7
경전강조, 설법 각종법회용
• 공급가 : 45,000원
T-7 핀 마이크는 감도가 매우 높으므로 앰프의 고음과 저음 조절 손잡이를 좌측으로 낮춰준 뒤 볼륨을 서서히 올려 스피커로부터 다소 멀리서 사용하십시오.

유코전자에서 생산되는 각종 마이크는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직접 설계한 작품으로,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 금속막대로 하나씩 가공해 만들어지는 '음성소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맑고 힘찬 소리를 연출하는 최고급 수준의 마이크로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독일 및 유럽 8개국 수출업체임)

마이크만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유 코 전 자
본사 : 158-091)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226-7
TEL:02)605-3235, 697-9976, 693-7537 / FAX:02)695-9676



◇ 천태종이 천태종史를 복원하고 한중 불교교류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 건립한 조사기념당.

천태종, 中 국청사에 조사당 건립

17일 낙성 법요식…지자·의천·상월조사상 봉안

대한불교 천태종(종정 도용)은 중국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에 '중한 천태종 조사기념당'을 건립하고 오는 17일 현지에서 낙성법요식을 거행한다.

천태종 역사의 맥을 복원하고 한중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새 지평을 열기위해 건립된 이 조사당은 대지 5백여평에 건평 80평 규모.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의 원력으로 진행된 이 불사는 93년 10월 착공, 1년 7개월만에 원만히 회향하게 됐다.

중국 명·청대의 전통건축양식중에서 우수성을 살려 빼어난 균형미를 보이는 조사기념당 안에는 천태종을 창시한 수나라 천태 지자대사(智者大師:538~597), 한국에 천태종을 개산한 고려 의천 대각국사(義天 大覺國師:1055~1101), 근대 한국 천태종의 중흥조인 상월원각대사(上月 圓覺大師:1911~1974)의 청동좌상이 봉안됐다. 조사당의 높이는 지자대사 160㎝, 의천·상월조사 150㎝이다. 세분 조사의 행적을 담은 비석이 건물 내부에 세워져 있으며, 벽면에는 양국 천태종의 법통 계승과정이 도표로 그려져 있다.

국청사는 중국의 사대명찰의 하나로 천태종의 발원지이다.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과 합의아래 이곳에 조사기념당을 건립한 천태종은 자부심이 크다.

이 불사를 계기로 한중불교가 법형제임을 재인식하면서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할 뿐 아니라 천태사상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펴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낙성법회에는 천태종 종정스님을 필두로 총무원장, 총무부장등 종단 임원들과 이기영, 이재창, 권기종, 이영자 교수등 학자 및 신도단체장과 천태종도등 2백4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불교계에서도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승단 연수회 개최

23·24일 화성 신흥사서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승, 신규 경승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승단 연수회가 오는 23,24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정락스님(포교원장)의 '신행혁신과 경승포교과제', 이홍우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경승활동의 방향' 강의가 각각 열리며 경승사례 발표(성북경찰서 경승실)와 함께 경승활동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해 토론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태고종 청년회 84주 불광사서 기념법회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는 지난11일 북한산 불광사에서 창립 8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만해 한용운스님의 유신불교사상을 계승하고 태고보우국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봉행하는 이번 법회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제6회 환경가꾸기 실천 큰모임과 등반대회로 진행됐다.

이날 청년회장 도각스님은 "청년회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맥이 꿋꿋하게 이어오고 있다"며 "창립정신을 받들어 최근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는 환경운동에 청년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도자 양성등 개혁안 확정

태고종 종단발전특위…23일 종회상정

태고종 종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금담스님)는 지난 9일 공청회를 열고 종단개혁불사안을 확정했다. 이안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제70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 종회의 인준을 받아 종단개혁불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및 연석회의를 갖고 위상확립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해왔다.

특위의 종단발전개혁안 가운데 종단발전 지표로 △일반 정규 교육과 불교의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하고 일정한 수행과정을 통한 지도자 양성 △불교포교는 물론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법사회적인 복지, 봉사시설 확보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정하고 개혁불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승려의 복식제도 개선 △선교육 후득도의 승가교육제도 정착 △법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10재시 제도의 정착 △교부금 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위는 의식의 한글화 작업, 포교교육단체 구성, 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통일위원회등 사회활동단체 구성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불교는 인류평화 구현 '열쇠'

하와이 대원사 20주 학술대회…7개국 학자 32명 참가

"세계 인류의 평화적 삶은 불교사상과 실천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 이 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와이 대원사(주지 대원)가 주최한 제7차 국제불교학술대회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 7개국 32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하와이대학 제퍼슨홀에서 열렸다.

'불교와 평화, 그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불교학의 거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박사가 기조연설을 해 관심을 모았다.

나카무라박사는 대회 첫날 연설을 통해 "세계의 불교 학자들이 인류평화에 대한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검증해내는 것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개인의 평화' '사회갈등의 해소방안' '환경문제의 불교적 극복' '불교와 건강' 등의 4분과로 나눠 진행됐으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주목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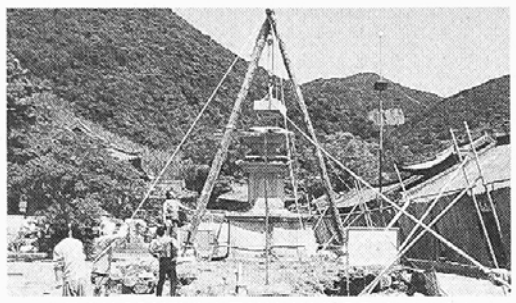
〈차주상보〉

83년 첫 학술대회 이후 2년 단위로 개최돼 온 이 학술행사는 올해 대원사 창건 20주년에 때맞춰 어느해보다 대규모로 마련됐다.

창건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오후 7시에는 '한불합창단과 몽고 고전무용단 초청공연'이 센 루이스고등학교 마미야 극장에서 1천여 교민이 모인 가운데 펼쳐지기도 했다.

또 대원사는 지난 4일 일요법회에 정병조교수(동국대)를 초청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닦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하와이=임연태 기자



◇ 표충사 3층석탑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통일신라때 금동여래불상등 발견

밀양 표충사 석탑서

지난 2일 표충사(表忠寺) 3층석탑(보물 467호)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과 유리제 구슬은 통일신라시대 것이며, 명문석(銘文石)은 조선 성종때의 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방 학예연구실장 등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지난 3일 밀양 표충사 경내에서 이들 유물에 대한 조사의 견을 발표했다.

日 소재 한국문화재 도록으로 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최창윤)은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박물관, 야마토문화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를 도록(圖錄)으로 발간했다.

이 도록에는 3개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유물 3천3백90여점의 목록과 4백66점의 사진도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유물소개 및 분야별 해설기사도 싣고 있다. 미국·유럽박물관,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이어 네번째 도록을 발간한 재단은 중국 러시아 등지에도 조사단을 파견해 도록을 발간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록완화 국고 지원

문화체육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최근 개인 및 기업의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을 촉진키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국고지원·세금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뷰

하와이 대원스님



하와이에 유일하게 자리잡은 한국사찰 대원사가 올해로 창건 20주년을 맞아 해외포교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에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0만 주민들에게 '전법목탁' 원세워

"무슨 일인든지 성실하고 올바르게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20년 불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75년 6월 18일 목탁 한벌과 법복 한벌이 든 바랑을 메고 하와이에 도착, 20년간 교포와 현지인 포교불사를 추진해온 대원스님. 스님은 지난 20년간 바르고 성실한 자세야말로 수행자의 모든 것이란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런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세계인에게 불교적 사고방식과 삶의 자양분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일곱번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었던 것도 저의 생각이 그들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국의 불교현황과 학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대회 주제를 선정하는등 수많은 준비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누군가 해야할 일'을 한다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는 대원스님은 1백20만 하와이 인구 모두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날까지 전법의 목탁소리를 멈추지 않겠다며 국내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와이 대원사는 대웅전, 선원, 종각 등이 한국전통 건축으로 지어져 있으며 현재는 대규모 문화관을 건립하고 있다.

해외통신

인도 아람 상원의원 니와노 평화상 수상

종교협력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제12회 니와노(庭野)평화상 시상식이 지난달 12일 동경의 센츄리호텔에서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는 인도의회 상원의원인 아람박사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 2천만엔이 수여되었다. 아람박사는 1962년부터 시작된 중국·인도 분쟁시 '델리·북경 평화진행'을 조직, 대화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등 분쟁종결에 큰 공헌을 세웠다. 최근에는 종교간 협력에도 힘을 쏟아 WCRP(세계종교평화회의)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스님 일대기展 5일 일본 무림사서

일본의 아이치현(愛知縣)의 진언종 무림사에서는 지난 5일 불전의 한역화에 큰 업적을 남겼던 당대(唐代)의 현장(玄奘)스님 일대기그림전이 열렸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현장스님은 629년에 서역구법의 길을 떠나 인도 각지를 돌며 경전과 불상을 구해 645년에 귀국한 후 '반야심경'과 '대반야경'등을 한역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국불교협회의 현지조사에 기초를 둔 불화56점이 전시되었고, 중국 서안시(西安市)의 대안탑(大雁塔)을 복원 그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이번에 복원된 대안탑은 중국정부국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실제크기의 1/3로 복원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목탁소리

스님 빙자한 상술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대전시 동구 대2동에 사는 한 불자는 얼마 전 스님이 방문해 시주를 요구하자 선뜻 1만원을 보시하고 축원을 해준다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주소까지 적어주었다. 며칠후 37만여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이 배달되었고 대금을 내지않자 내용증명으로 대금독촉을 해오고 있다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스님을 빙자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위가 활개를 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다.

그 피해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순진한 자들에게 시주하는 셈치고 구입 하라며 물품구입을 강요,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비스런 불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얄팍한 상술을 쓰고 있다.

서울 월계동의 한 불자도 지난 4월 사찰순례법회를 가던중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서 지리산에서 만들었다는 건강식품을 사라는 스님을 만나 반강제로 물건을 구입, 효력이 전혀 없었으나 그런 사실을 이웃에게 이야기하기조차 창피했다고 말했다.

사이비승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탁발행위는 이미 종단적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조계종 호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역할 또한 아쉬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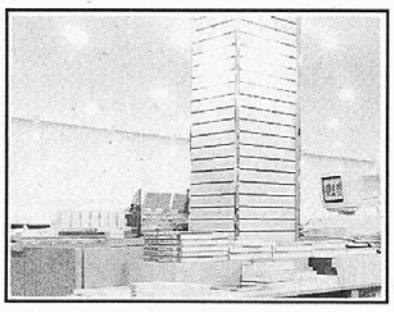
더불어 우리 불자들도 자비의 진정한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주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의 거룩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악덕인들을·자비의 고발정신 발휘로 구제하고 불교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불자들의 몫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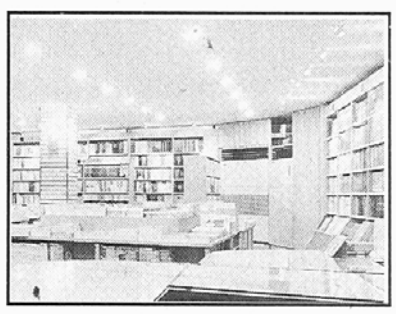
그렇게 될때 모두가 믿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도 불자들의 손으로 엮어갈 수 있을 테니까.

불을가득·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저자와의 만남(격월)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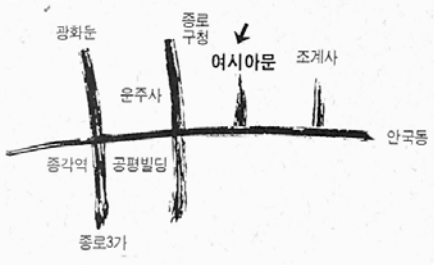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편리한 도서안내
·편안한 독서 공간
·도서상품권 취급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회원특전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통신 주문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등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봉사활동으로 자비심 키우자"

정부 교육개혁안 발표…교계 학생지도 프로 개발해야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불교계에서도 교육개혁의 역할 수행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종합생활기록부 평가 내용중 봉사활동 점수가 고입 내신성적 총 3백점중 매년 8점씩 24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의 사회복지법인 단체 및 봉사활동의 역할과 장소 제공이 가능한 단체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소규모지만 청소년교화연합회등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유도허오고 있다. 전북 금산중학교에서는 '학교주변 푸른 숲 만들기' '호국영령의 묘 제초작업' 금산사에서의 '대중공양돕기' 등 불교학생회를 주축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원심회 간병인협회 자비의집 등 교계의 사회복지단체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소제공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에서 펼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마을금고 운영' '사찰내 환경오염 감시' '원아 돌보기' '무의탁노인 돌보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교습' 등이 있다.

그러나 복지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 단체장들은 교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봉사활동의 영역과 프로그램이 타종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개신교의 경우 YWCA, YMCA를 비롯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95년에 학생당 40시간, 내년부턴 60시간 이상 근거자료가 분명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중학생 1학년 총 학생수가 약 84만명, 2년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면 중학생 약 2백 50만명이 5백만여 시간을 교외봉사에 나서게 된다.

이를 계기로 교육일선에 있는 교법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을 통해 청년불교 포교의 새 전환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교계에서 "불자학생뿐 아니라 타종교 학생들도 적성과 기호에 맞게 봉사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신도조직·관리등 교육

조계·해인사·쌍계사 말사 주지연수

승려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계종 직할사암 주지 연수회가 지난 7~9일 2박3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됐다.

직할 사암 주지스님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은 7일 오후2시 입재에 들어가 △임제록 해제(무비스님) △한국사회속에서의 종교현황(정락스님) △불교성보에 더하여(신영훈) △통일전망과 불교계의 준비(김학준) △지방자치제와 불교의 대처방안(김병준) 등의 강의와 함께 새로 △신도조직·관리에 대하여(지홍스님) △포교방법론(무진장스님)이 추가됐다. 한편 9일에는 해인사 쌍계사 말사스님 연수회가 해인사에서 열렸다.

재형스님 회장 선출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이 지난 8일 실시한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사회복지학과 재형스님이 선출됐다.



◇여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각자의 다짐을 쓴 나뭇잎을 생명의 나무에 붙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청정국토 한마당

만생명이 하나되는 청정국토한마당이 지난 3,4일 이틀동안 조계사와 인근 수송공원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6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환경행사인 이번 청정국토한마당은 3일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22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환경사진전 우리농산물 먹거리장터 헌옷 기워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본지 30호 보도〉

"서울시장감 도덕성 우선" 43%

지지후보 조순·박찬종·정원식順

불교리서치 스님대상 조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6·27 지방자치선거에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문화연구원(대표 홍무흡) 부산 한국불교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동안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스님 1백명(비구 57, 비구니 43)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제 선거에 관한 교계의 여론'에 따르면, 75%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관심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스님들은 반드시(63%) 또는 가능하면(19%)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 서울시장 후보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청렴성(43%) 행정전문성(30%) 경제·경영능력(15%) 대외정치력(5%)의 순으로 꼽았다.

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조순(27%) 박찬종(17%) 정원식(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응답자는 43%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주(19%) 민자(17%) 자민련(6%) 순이었으며, 56%의 응답자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보훈수계법회 봉행

간병인회, 오는 16일

불교간병인회(회장 정진스님)는 오는 16일 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초청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자원봉사자와 보훈병원직원불자회 회원, 환자등 1백여명이 참석, 보훈병원환자를 위한 위문공연도 펼친다.

'일하는 불자들의 모임' 3일 창립…2백명 참석

산업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을 위한 '일하는 불자들의 모임'이 창립됐다.

조계종 포교원과 전국불교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지난 3일 조계사내 덕왕전에서 봉행된 이날 창립법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동불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부 창립총회를 통해 임원선출, 회칙을 심의한데 이어 창립법회를 진행했다.

일하는 불자들의 모임은 향후 매월1회 정기법회, 순회법회 각종 소모임등을 통해 고통받는 불자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함양시키는 것에 창립의 뜻을 두고 있다.

한편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석심씨(34, 철도노동자회)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가 통일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문제에 소홀하다"며 "모임을 통해 불교계도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군승단 안거수행

95 군승안거수행이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30일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통도사, 수덕사등 각 지역 7개 사찰에서 개최됐다.

군승단 일체감 조성과 군불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군승안거수행은 종교활동, 교육활동등을 위한 교육과 토의, 참선수행으로 진행됐다.

동화사, 군불자 합동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지난 4일 오전10시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제1회 군불자 합동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역사단 등 군부대 2백여명의 군불자가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무공스님은 "마음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에서 온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군불자 및 가족이 되자"고 당부했다.

지방승가대 발전대책 논의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6시 교육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육원 활동점검과 방향모색 △지방승가대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육원과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종단교육정책 확립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승가대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는 오는 7월5일경 개최키로 했다.

행자교육원 상설 추진위 구성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행자교육원 상설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경 종회에 발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상사 화엄학림 설치를 정식으로 인가하고 총 4천만원 예산을 책정 분기별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종립선원으로 지정돼 있는 봉암사 선원 지원금으로 하안거 동안거별로 각 2천만원씩을 책정했다.

동국대, 6학기 졸업제 발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7일 96학년도 신입생부터 '6학기 조기졸업제'와 '다전공 제도'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졸업시기를 졸업예정 1학기에서 2학기로, 졸업 최저학점을 '1백40점에서 1백20학점으로 낮췄다.

복수전공제의 경우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해야만 추가 학위취득이 가능하던 것을 전공학점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돼 3개 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해졌다.

남북불교지도자 日서 재회동

7월 2·3일 조국통일·불자역할 고취 법회 열어

남북 불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일본에서 만나 조국통일을 기원하며 교류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8·15 광복 50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희생동포 위령법요 및 조국통일과 불자들의 역할에 관한 회의가 오는 7월2일과 3일 양일간 일본 도쿄 정토종 대본산 증상사에서 개최된다.

재일본 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회장 태연)와 재일본 조선불교도협회(회장대리 홍보월)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공식대표단 30명을 비롯 4백30여 불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일 개최되는 '8·15 광복 50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희생동포 위령공동법요식'은 △추도식 △남북대표 인사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날인 3일 열리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불자들의 역할에 관한 제1차 회의'는 종단협과 조불련, 재일본 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와 재일본 조선불교도협회 대표들이 각각 참석, 남북불교교류 및 불교문화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날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진관사는 지난 5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회활동 강화의지 천명

대불청 지도자대회…월주스님 만해생가 찾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가 지난 3.4일 양일간 개최한 '제14회 전국불교청년지도자대회'가 성료됐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회원들은 대불청의 내부조직 강화와 대사회적 활동에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5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대회의 개최지를 경선을 통해 경기지구(수원)로 확정했다.

한편 대불청 총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홍성 만해스님 생가를 찾아 스님의 업적을 기렸다.

'자연보호' 법회 봉행

법사회, 4일 직지사서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불교법사회(회장 구윤회)는 지난 4일 김천 직지사 설법전에서 '제1회 자연보호 및 인성교화 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3백여명의 법사가족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강의를 비롯 직지사 경내를 돌며 쓰레기줍기를 실시했다.

"호국영령 애국정신 기린다"

진관사·승가사·금강경독송회등 추모법회 잇따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각종 추모법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진관사(주지 최진관스님)는 지역주민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으며, 현충일인 지난 6일에는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전국 53개 지부회원 1천5백여명이 서울 국립묘지를 비롯 각 지역에서 천도독경행사를 거행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이와함께 오는 18일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혁명 관련 영령들을 위한 천도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경북 칠곡군 법전사(주지 이혜륜스님)와 칠곡군 사원연합회가 함께 '제13회 순국선열 호국전몰 군경 합동위령재'를 가산면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승가사(주지 성상륜스님)도 오는 25일 경기도 포천 호국금강사(군법사 법천)에서 제12회 '6·25 전몰장병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이밖에도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스님)가 지난 1일 '호국영령 천도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기원법회'를 거행했다.

불교성지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발 : 6월 25일
·동참금 : 100만원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 : 6월 18일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195만원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십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 : 6월 23일
·동참금 : 188만원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출발 : 7월 20일
·동참금 : 230만원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통일도 봄바람처럼…' 법회서 발원

4. 27 조선불교도연맹 회동에서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지나가야할 소식이 하나 있다. 동행했던 「평불협」상임고문 정산스님께서 해방전 북에 계시던 스님 몇분의 생사를 알려고 인적사항을 준비해 갔는데, 유점사에 재직하던 곽소순스님은 최근까지 칠보산 개심사에 계시다 열반하셨고 함병준스님은 귀주사에서 열반하셨다고 하였다. 그외 장상봉, 백석기스님 등은 불교도연맹에서도 그 생사여부를 알수 없다고 하였다. 왜 우리가 이분들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형제요, 우리 불자들도 이산의 아픔을 지닌 분단 비극의 한



◇2층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탈문, 천왕문, 5층석탑, 동승당, 서승당이 자리한 광법사 전경. 91년에 복원됐다.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평양의 최대사찰 광법사 〈4〉

빈터에 대웅전·해탈문등 갖춰 91년 복원
승려 양성기관 '불학원' 운영…간판 사찰

당사자라는 점 때문이다.

1차회동에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눈 우리들은 앞으로도 남북 교류는 일시적 행사 위주의 논의보다 실질적 교류에 관심을 가지자고 대화의 촛점을 낮추견서 신뢰와 우의의 탑을 서로의 마음 속에서 부터 한층씩 쌓아 올렸다.

해방전 스님들의 안부

이제 비교적 가벼운 마음이 된 우리들은 28일 하루종일 조선영화촬영소를 비롯, 만수대 소년궁화궁전, 인민대학습당등 그들이 자랑하는 평양시내 주요 기관들을 부담없이 둘러 보았다. 실제로 이 기관들이 평시에도 지금과 같은 기능들을 유지하는지 교포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나, 그 건물들의 규모와 시설은 선진 어느 국가와 비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웅장하고 대담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날 저녁, 우리는 그야말로 이번 방북의 직접 동기가 됐던 능라도 5. 1 경기장의 평양체육문화축전' 개막식에 참가하게 되었다. 모두 정장을 하라고 하고, 입장시 검색이 있어 누구 큰 인물이 나오는가 싶어 기대를 했는데 정작 본부석에 주빈으로 앉은 사람은 일본의 프로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끼와 미국의 권투선수인 선글래스를 낀 무하마드 알리 뿐이었다. 일본의 참의원이기도 한 이노끼의 은퇴경기를 위해 이번 평양축전이 준비 되었다하니 우리 불자들도 참관자였던 교포들과 함께 조금은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날 경기장에는 모두 16만의 인파가 스탠드와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모두 열광하였다.

30일 오전, 이제 내일이면 평양을 떠나야하는 우리들은 안내원 한사람을 대동하고 불자 몇몇과 함께 두대의 택시에 분승하여 대성산_광법사로 향하였다. 벚꽃이 만발한 대성산 유원지를 돌아 봄기운 물씬한 광법사에 도착하니 주지 강구인스님이 반갑게 우리를 맞는다.

감격의 남북합동법회

평양 8경의 하나인 대성산 국사봉 기슭에 가만히 정좌한 광법사는 정릉사, 용화사와 더불어 평양의 3대 사찰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며, 북한의 승려 양성기관인 불학원이 있어 세인의 주목을 받는 사찰이다.

광법사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고구려시기의 것으로 전쟁때 폭격으로 소실된 것을 91년 김주석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복원하였다는 것을 나는 광법사 법회에서 똑똑히 깨달았다.

남쪽 불교도를 위하여 축원한 올해 47세의 강구인 주지스님, 전쟁때 희생된 남북의 원혼을 위하여 축원한 올해 환갑의 정산스님,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발원한 아직 마흔 미만의 본인 지현정사등 남북의 이 대단하지 않은 불자들이 기



◇ 푸른사자를 탄 광법사 해탈문안의 문수보살.

한다. 한마디로 묘향산 보현사와 함께 오늘의 북한 불교 간판 사찰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해탈문, 천왕둔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니 새로 세운 칠층석탑에서 금방이라도 돌가루가 튀길듯 산뜻한 기운이 건네진다. 몸집은 크지 않으나 비교적 세련된 불단 앞에 서서 나란히 남과 북의 불자가 마음을 모으고 합장한 것은 정확히 정오무렵 우리는 감격의 남과 북 합동법회를 봉행하였다.

통일이 정녕 무엇인가. 격식을 따지자니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요, 명분을 따지자니 일마다 걸림이 많은 것이다. 해방이 어느날 예고없이 갑자기 온 것처럼 통일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 무슨 단계를 밟아 이루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주 단순한 머리로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제 통일을 말로만 하고 진정한 속뜻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낮추어라. 통일은 통일이란 구호를 깰때 비로소 이렇게 가깝다는 금년도 사월 초파일의 색다른 의미를 재미 언론인 이석력씨는 말없이 기록하였고 화창한 봄바람으로 법신부처님은 화답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이번 우리를 안내하느라 발등이 붓도록 고생한 안내원 강정우씨의 시커먼 얼굴이 안쓰러워 그를 졸라 옥류관으로 방향을 돌렸다. 옥류관은 한끼번에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제일의 식당으로 냉면이 소문대로 천하일품이었다.

옥류관 냉면 "천하일품"

평양 시내에는 옥류관외에 청류관등 대형 식당들이 몇개 있다. 식당들이 이처럼 규모가 큰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는 개인 손님보다 대규모 단체 손님이 많기 때문이란다. 몸도 정신도 시장하던 차에 비록 안내원이 옆에 있기는 하나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모처럼 자유인의 기분을 느끼는 평양의 마지막 오후였다.

주부신행담

폭풍이 지난 들에 핀 꽃 ①

"기독교 며느리감 싫다는 시어머님 말씀에 고민 CBS 상담실 문 두드려 다시 태어나는 길 찾아"

얼마전 나는 동해안을 다녀왔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보광사 종무실에서 휴가를 얻어 모처럼의 나들이를 계획하고 넓은 바다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점검과 신앙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산을 떠올리며 여름이 되기 전 미리 바다를 구경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바다를 대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듯한 교차된 느낌을 간간히 느끼곤 한다. 바다앞에 서면 인간은 티끌과 같은 왜소함을 느낀다. 어찌 남을 속일 수 있는 우매한 마음이 생길까? 밤바다 모래밭에 앉아 있으면 더욱 신비한 마음이 생긴다.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파도를 보며 나는 내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해 보았다. 불교와 내가 하나된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진다.

초발심을 낸지 어언 10년. 그런데도 초발심때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금자 반지에게 미안한 일이나 아닌지 반조를 해보았다. 불교를 나의 신앙으로 삼으면서 세운 서원은 '평생을 부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겠다'이다.

중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녔다. 그래서 곳곳에 위치한 교회문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생활자체는 물론이고 학교생활도 거의가 기독교생활로 점점 물들게 되었다. 예배시간은 물론이고 학교 시험 과목에도 꼭 연결되어 목사님의 도장을 받아야만 시험점수가 나오곤 했다.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에게 시험점수를 핑계로 계속 교회에 다녔다. 기독교를 떠난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진 교회 생활과 청년부로 들어서면서 내 신앙활동을 더욱더 넓혀 갔다. 학생회 부회장, 회계, 청년회 부회장, 성가대 임원, 국민학교 6학년 반사등 태어나서 처음 접한 기독교생활은 생의 전부였다. 성경암송대회에서는 많은 사람 물리치고 1등을 해 금테로 둘러진 커다란 성경 찬송가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기독교에 정신없이 빠지게 되니 아버지의 반대가 컸다. 기독교가 이유없이 싫다고 하신다. 우리 집안은 그렇다고 불교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아침마다 부뚜막에 정수와 밥을 올려놓고 빌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내면 토속신앙에 가까웠던 것이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신앙생활에 열중이었다. 지금도 우리 친척들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내가 불교신자로 바뀐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다니기를 8년여,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지금의 내 남편이 대학축제 파트너가 돼달라고 해서 잠깐 응하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계속 쫓아다녔고,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내 공부할 일이 있었고 그는 복학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집을 1년반 동안이나 찾아와 엄마 아버지를 설득해 결혼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도 그의 정성에 감동받아 그가 대학 4학년 2학기를 맞았을때 우리는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집안이었다. 기독교 며느리는 싫다는 시어머님 말씀에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삼형제의 장남이고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와의 충돌은 뻔한 일, 그는 어머님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결혼을 하면 교회에 안다닌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내게 와서는 어머님과 분가해서 살테니까 그때 교회 다니면 된다는 것이다. 남편도 집안은 불교이지만 대학을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오히려 가까왔다. 그리고 많은 이해심이 있었다.

나는 혼자 끙끙거리며 괴로워하다 기독교 방송에 '같이 생각해 봅시다'라는 프로에 편지를 띄웠다. "결혼을 며칠 앞둔 사람인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시댁은 불교집안이다. 사람은 좋아서 결혼하고 싶지만 우상숭배를 하고 미신을 믿는 곳에 시집가기가 싫다. 그 어머니도 반대를 하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 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모대학 교수님은 예리한 답변을 주셨다. 그 답변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나 싶다.

김 묘명심 〈파주 보광사〉



무료법률 상담소 (051)466-1680
자비의 전화 (051)461-0009
부산불교 자비원
전화:(051)461-0009 FAX:(051)441-2719

현대불교 부산판

부산불교 신행 현주소 18면
부산불교를 이끈다 19면

범어사 승가대 출신 중진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이력을 마친 스님들 가운데는 오늘날 불교계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중진들이 많다.

66년 첫 졸업생 가운데서도 인명부의 1번으로 기록된 스님은 정휴스님이다. 정휴스님은 용주사 강원을 거쳐 청암사에서 중강 소임을 맡아오면서 원각경과 화엄경을 공부했다. 그후 법주사 강백 삼성스님, 혜총스님, 황지원스님, 법이스님등과 범어사에서 강원을 개설했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첫 학인이면서 강원의 문을 연 주인공들인 셈이다. 이중 지원, 법이스님은 입적했다.

삼성스님은 현재 법주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혜총스님은 대한불교신문사의 발행인이다. 종하스님(불교방송 이사장)도 이 당시 범어사에서 이력을 마쳤다. 도서출판 토방을 운영하고 있는 율사 석성우스님도 이곳 출신. 제주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는 중원스님, 청계사 주지이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인 지명스님, 용주사 주지 정현스님도 이곳에서 공부했다.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금정스님은 범어사에서 중강을 지내기도 했으며 해인사 강주인 수진스님도 이곳에서 공부했다. 강남 봉은사 주지 성문스님과 부산 인권위에서 활동했던 범산스님도 범어사 승가대가 배출한 이력종장의 반열에서 빠질 수 없는 스님들이다.


◇종하스님


◇정휴스님


◇법원스님


◇정우스님


◇혜총스님


◇지명스님


◇성문스님

"계·정·혜 삼학 닦는다"…쉼없는 정진

종하·정휴 중원스님등 폭넓은 활동

초여름의 신록과 고찰의 풍경을 캔트지에 그리기에 여념이 없는 중학생들이 범어사 경내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다. 무리지어 다니는 관광객들의 경이로운 시선과 학생들의 진지한 그림 그리기 장면 자체가 한폭의 풍경화 같다.

나른한 오후.

범어사 원응정사 강당에서는 젊은 스님들이 컴퓨터를 앞에 놓고 새로운 배움의 세계를 탐닉하고 있었다. 범어사 승가대학(학장 정관스님)은 최근 5대의 컴퓨터를 들여 놓았다.

66년 첫 졸업생 배출

16명의 학인들이 간경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승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아래 컴퓨터 다루기를 배우는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중강을 맡고있는 용학스님이 컴퓨터에 능해서 따로 강사를 둘 필요가 없고 시간 나는대로 특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

전통 강원의 교습법을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범어사 승가대학의 모습에서 부산 지역 신행을 이끄는 범어사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범어사 승가대학은 1966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물론 그 이전의 강원은 매우 이름난 간경의 터전이었다. 고준한 이력의 대덕스님도 매우 많이 배출했던 범어사 강원이 지금의 체제로 자리잡은 후 첫 졸업생이 1966년에 배출됐던 것이다.

이후 최근까지 범어사 승가대학은 2백48명의 이력종장들을 배출했으며 현재는 16명의 학인들이 간경과 외전공부에 여념이 없다. 다른 승가대학과 마찬가지로 4개의 반으로 구성됐으며 치문반과 사집반은 강주 대각스님과 중강 용학스님의 지도로 이력을 쌓고 있다. 사교·대교반은 전통 논강법으로 부처님의 법바다를 탐구하고 있다. 강주스님의 자세한 검증 아래 열쳐지는 논강식 수업은 언제나 진지하다.

중국불교사 특강 계획

기본적인 내전 외에도 범어사 승가대학은 영어와 일본어,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강 형식으로 〈선문촬요〉를 공부할 계획이다. 또 무비스님의 경전강의와 홍선스님의 중국불교사도 특강으로 꾸려볼 계획이란게 강주 대각스님의 생각이다.

다른 승가대학과는 달리 범어사에서는 영어를 줄은 조건속에서 배우고 있다.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이다. 영어강사 빅 존씨는 부산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다가 불교에 심취돼 아예 산내 암자인 안양암에서 살고 있는 초발심자이다. 일본어는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맡고 있다. 작년 강주 대각스님이 범어사에 오면서 시작된 외전과목은 학인 스님들의 열의로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범어사 승가대학은 사중의 문제로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력의 맥은 끊이지 않고 있다. 87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이 범어사 승가대학으로 개칭된 이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학인들을 모집, 치문에서 대교까지 오롯한 이력을 마치고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조(佛祖)의 원력을 계승한다 △협동단결로 행동한다 △자비와 봉사로 주는 자가 된다 △인내와 끈기로 관철한다.

이것은 범어사 승가대의 학훈이다. 수행 이력에 대한 다부진 결의와 시대를 이끄는 승가상 정립에 대한 원력이 그대로 보여지는 학훈이다.

범어사 승가대학에는 대강백도 많이 주석했었다. 고봉(高峰)스님, 도행스님, 운성스님, 지효스님 그리고 철보사 조실 석주스님, 백운스님, 무비스님 등 당대의 강백들이 이곳에서 후학의 간경을 아끌며 스스로의 학해(學海)를 드넓혔던 스님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 재선공부를 하고 있는 청법스님등 외국으로 나가 유학을 한 스님도 많다는 것이 범어사 승가대의 자랑이기도 하다.

대단한 학풍을 자랑했던 범어사 승가대학은 최근 들어 학인의 수가 줄어들고 사중의 문제로 어려운 경우를 맞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랫반 윗반이 내·외전 탐구에 여념이 없고 중강·강주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진지한 강의 준비에서 영남 제일의 이력종장 배출처로서의 희망은 밝다.

임연태 기자

◇범어사 승가대학. 초여름의 신록속에서 스님들의 면학열기가 뜨겁다. 이원응료에서 현재 16명의 학인이 내·외전을 공부하고 있다.



내일의 아라한들 ④
젊은 학승 탐방 범어사 승가대

논강식 수업 '진지'…2백50여 이력종장 배출

어학·컴퓨터등 커리큘럼 다양…미국인 불자가 영어 강의

인터뷰 강주 대각스님

"PC로 강의 준비합니다"

시대정신 이끄는 승가역할 찾기 중시

"시대정신을 이끄는데 승가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세간의 일들과 출세간의 수행이 산문을 경계로 다르게 존립할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인만큼 우리 강원에서는 내·외전 공부를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범어사 승가대 강주를 맡고있는 대각스님의 얘기다. 많지 않은 학인들을 지도하고 있어 공부는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스님은 기본적인 강의 외에 다양한 특강을 통해 학인들의 식견을 넓히겠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법주사에서 공부했지만 범어사승가대의 학풍을 지키는데 문중개념이 필요치 않다며 점차 학인수를 늘여나갈 방침이라고.

"새로 시작한 컴퓨터 교육에 학인스님들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 보며 강의를 준비하는 대각스님은 "가르치는 것은 배움의 반이다"라는 소신을 보이기도 했다.

스스로 연구하며 전통 강원의 맥을 지키고 앞서가는 승가의 교육도량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게 강주 대각스님의 원력이다.


◇범어사 승가대의 컴퓨터교육은 아래·윗반 따로 없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주 대각스님이 컴퓨터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다.

무하자 주택건설 부문 1위
모델하우스 실제주택 비교부문 1위!
신도시 종합주거 만족도 평가 3위!
(한국주택신문 조사)

우등 경남 마리나아파트 분양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는 왔다!

요트 경기장,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어 정말 즐거워요.

3가지 빅 서비스!
1.혁신 설계!
2.대폭 인하!
3.납입 유예!

24평형은 방이 3개. 내 서재를 따로 마련해야지.

정말 넓고 깨끗하네~ 무공해 자연까지 함께 분양 받았어요!

마리나 타운의 마지막 최상의 주거지! 자연을 함께 분양받는다.

부산의 새로운 교통,문화,상업,휴양 중심지로 떠오르는 수영만. 그중에서도 핵심요지에 들어서는 경남 마리나아파트. 앞에는 바다, 옆에는 문화공간, 뒤에는 온천- 그 최고의 생활낙원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변환경 해변인접(해운대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레저, 문화시설 밀집 경남이 선택한 마리나 타운의 마지막 최상의 주거지 신 시가지 17개 학교의 명문학군 부상

교통 광안대로, 수영강변도로 개설 해안 순환도로와 도시외곽도로 지하철 2호선 인접 출, 퇴근 편리

시설 넓은 주차공간 세대별 자화수기 설치 단지내 대형상가 살기좋은 주거단지

총 624세대 대단지
• 24평형 284세대
• 33평형 250세대
• 50평형 60세대
• 61평형 30세대
※96년 9월 입주예정

분양문의 (051) 746-8734~5

경남기업

해운대 신시가지 경남아파트 분양中

부산불교 신행 현주소

1천여 사암 · 성인 43% 불자 "불교도시"

개금 · 공창사회복지관 개관…'자비실천'
불교방송 · TV개국으로 신심열기 증폭
금정 · 해동 등 종립학교 동량배출 일익담당

'불교도시'로 불릴만큼 불심이 강하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부산.

1991년 사회통계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이상 부산시민 인구 1백67만6천명 가운데 불교신자는 42.6%인 71만3천명으로 나타나 있다. 즉 부산의 성인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교신자라는 말이 된다. 이는 같은 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의 불교신자 비율 27.7%를 훨씬 앞서는 수치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은 가히 불교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현재 부산에는 조계종을 비롯하여 26개 종단 및 재단법인에 등록된 사찰과 미등록 사찰을 통산하면 약 1천여개 이상의 사암이 있다. 등록된 사찰(7백28개)을 구별로 보면 동래구가 1백10개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가 89개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구(74개), 남구(73개), 금정구(68개), 서구(67개), 동구(59개), 해운대구(58개), 사하구(49개), 영도구(41개), 강서구(26개), 중구(14개)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부산지역은 조계종 뿐만 아니라 타 종단들의 활동 또한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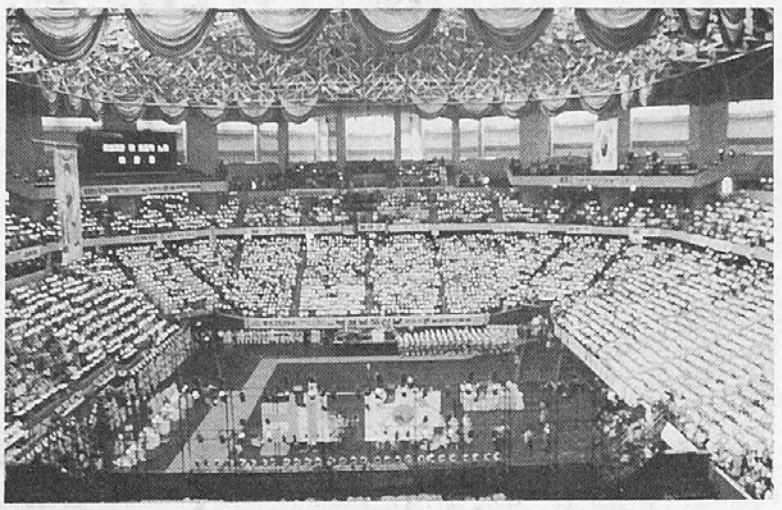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익히 알려져 있는 종단 외에도 원효종 총본산(금수사)이 있으며 이밖에도 선교종, 진언종(진광원), 홍제종(사명사), 미륵종(천룡사), 교화종 등의 총무원이 부산에 자리하고 있어 부산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신행단체는 94년말 현재 사찰신도회 22개를 포함하여 82개(미등록, 활동전무 단체 제외)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여개 신행단체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종립학교들. 금정중학교(설립본사 범어사), 동해중학교(총지종 정각사), 해동중학교(범어사 관할), 해동고등학교(통도사) 등은 장차의 불자동량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불교교육원 등 불교교양대학에서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강좌를 진행, 불교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개관한 개금사회복지관(위탁운영자 사단법인 불국토)과 공창사회복지관(위탁운영자 통합), 해동고등학교(통도사) 등은 장차의 불자동량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불교교육원 등 불교교양대학에서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강좌를 진행, 불교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복지관들은 문화 사랑방 구실과 간접적인 불법 포교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그 기능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교통 · 공해에도 관심을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의 요람인 천마재활원과 성우원 등 복지기관들도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회장 정관)는 교계에서 최초의 어린이 포교단체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하며 어린이 포교를 이끌고 있다.

부산에서 달리는 차량은 대부분 염주가 달려있다. 거리마다 승복을 입은 시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교가 생활화된 부산은 지난 2월 불교방송에 이어 3월에 불교TV가 개국되면서 신심의 열기가 증폭되고 있다.

불교부산방송은 마산, 김해시 등 5개 시와 양산군 등 8개 시 군 일원을 가청권으로 하고 있다. 자체프로로 '지방뉴스'와 '열린 아침 열린 정보' '반야의 샘' 등을 제작, 부산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불교TV까지 방영되고 있어 부산불교는 방송매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교의 물질화, 거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불교 또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부산불교계 역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만큼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부산불교계도 내면적인 성찰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사회개혁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곽만연교수(동아대)는 교통문제 · 마약퇴치운동 · 공해방지 · 환경 · 통일 등 불교가 우리 사회의 확고한 구심점으로서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부산불자들의 단합과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병근 기자

부산법회 안내

옥련선원 757-9067

초하루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

자비사 505-0300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2시

관음포교원 517-84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주부경전교실 매주 금 오전11시
거사경전교실 매주 금 오후7시
관음법회 매월 24일 오전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1~3일 오전10시

영주암 754-2210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옥바라밀법회 매월 6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정진회법회 마지막 목 오후7시
시민선원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연등참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문수사 624-3754

초하루인등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보름지장기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문수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공업대불자법회 매월 마지막주 토 오전11시

내원정사 242-0691

초하루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 오전10시
약사재일법회 매월 8일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10시
영가천도 지장기도 매년 5월8일~6월25일(양)

동명불원 624-7667

초하루신중기도법회 매월 1~3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오전10시

부산지사 051)634-5114
경기지사 032)613-4027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427-8008

부산불교 신행 메카



불교회관

주요 신행단체 입주… '포교1번지'

부산의 번화가 서면에서 약 10분거리에 있는 양정 불교회관은 부산지역의 불교 관련 대 소사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이다. 불교회관에는 현재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대한불교신문, 금정불교대학(범어사 부설), 붓다의 메아리(설법 테이프 판매점), 대한불청 부산지구, 어린이지도자회 등의 단체가 입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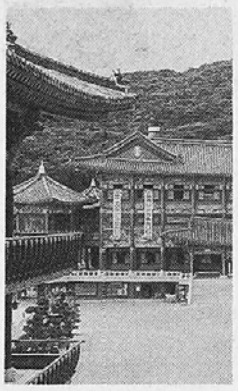
특히 불교연합회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각종 불사들을 체크하여 사찰과 언론기관 등에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 불자라면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불교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3백63평, 연건평 8백40평 규모로 지난 82년 6월23일에 준공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부산진구 당감동 선암사(범어사 말사) 주지였던 문동림 스님(현 해림사 주지)이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불교의 현안은 대부분 이곳에서 논의되고 그 해결, 개선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요즈음은 금정산 범어사 앞 고층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매일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불교 신행 메카

삼광사



1만불자 원력모은 만존불상 '장관'

흔히들 '종교천국'이라고 거론하는 우리나라에서 선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의 교세가 막강하다는 부산지역은 조계종 뿐만 아니라 여타 종단의 신심과 영향력도 대단하다.

그 중에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스님)는 단일 사찰 규모로서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신도수와 첨단 현대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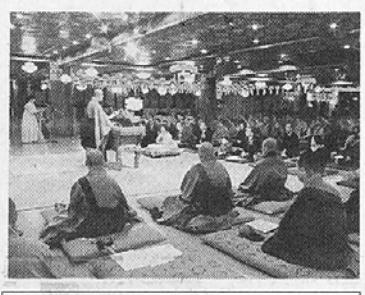
94년 현재 등록된 신도수만 약 4십여만명이다. 1백여평의 대웅보전과 1만명이 동시에 입장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봉행할 수 있는 종합불교회관인 지관전(止觀殿)이 그것.

특히 지관전에는 1만불자의 원력을 모아 봉안한 만존불상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첨단공학의 오디오와 비디오, 컴퓨터 조명, 세계 각국어 동시 통역시스템이 설치되 있어 현대화된 사찰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삼광사는 이러한 외형적 시설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다.

주지 춘광스님은 "만법일체가 한마음임을 인식하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동체사상을 통해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해 삼광사 신도들은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등 생활불교와 대중불교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불교 신행 메카



통도사 부산포교원

일반에도 장소제공…"포교에 한몫"

부산의 도심 서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통도사 부산포교원(주지 심산스님)은 스님의 원력과 그 지리적 장점때문에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도심 포교당이다. 도심 포교당이라고는 하지만 여느 대찰에 못지않게 신도수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특징. 현재 현대식 4층 건물의 이 포교원에는 십여개가 넘는 불교신행단체들이 입주해 있어 그야말로 부산불교의 메카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다.

지난 93년 5월25일 개원한 이래 같은해 10월에는 어린이법회, 11월에는 부산스카우트불자회와 선재지역대 그리고 12월에는 합창단이 각각 창립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불사를 이루어 냈다. 포교원은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법회뿐만 아니라 결혼식, 각종 문화행사등의 이용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어 포교에도 일조를 다하고 있다.

심산스님은 도심포교당에는 젊은 불자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에 대해 오히려 노보살과 직장에 다니는 거사들이 많다며 "기력이 쇠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포교당이 한결 찾기 쉽다"며 도심 포교당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대불교 신문 부산지사 창립 을 축하합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 장 조 정 관
수석부회장 변 춘 광
상임부회장 김 월 강
사무총장 이 혜 총
(051) 867-0501

천 불 사
회주 허 도 봉
(0523) 82-1463

통도사 부산포교당
주지 심 산
(051) 816-2241

btn 불교TV방송부산지사
지사장 우 판 수
(051) 645-5114

BBS 불교부산방송
사 장 류 진 수
본부장 박 순 곤
(051) 632-5114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 수
상임부회장 임 채 수
사무국장 우 학 수
(051) 464-2020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김 정 태
상임부회장 서 춘 석
(051) 464-7174

부산불교 교육대학
학 장 이 하 우
이사장 박 주 천

부산불교 거사림
회 장 서 건 남
수석부회장 엄 영 건

부산불교 녹야회
회 장 허 건 구
상임법사 유 석 영

부산불교를 이끈다… 주요신행단체

부산법회 안내

한마음선원 403-7077
정기법회 매월 첫째일 오전11시
한마음요전법회 매주 금 11시
초하루 보름 특별정진법회
매월 1일, 15일(음) 오전11시
청년회 1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회 2부(대학생)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대입시생법회 매주 토
오후7시30분

미룡사 404-2100
초하루법회 매월 1~3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30분

장산사 742-4891
초하루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30분

해림사 527-0677
초하루법회 매월 1~3일 오전9시
보름법회 매월 15일 오전9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오전9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오전9시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소림사 468-4497
초하루법회 매월 1~3일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10시

심우정사 646-8228
초하루법회 매월 1~3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불광사 809-1420
초하루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오전10시30분

해월정사 741-7762
초하루법회 매월 1일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고등학생법회 둘째 토 오후3시

광성사 243-2468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구독신청	02)737-0693
광 고	02)737-8881
여시아문	02)737-0695
녹수청산	02)736-3782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정 관스님

부산에 상주하는 불교종단, 법인 및 신행단체 상호간의 결속과 협력을 도모하며 상호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화합으로 부산지역 불교발전에 힘쓰고 있는 부산지역 최대의 조직이다. 등록사찰 8백74개, 승려수 약 1천6백여명, 신도수 약 2백만명(88년 인구센서스 통계)인 동회는 최근 범어사 앞 고층아파트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회장-정관스님 수석부회장-춘광스님

부산불교신도회



◇류 진 수씨

부산지역 92개 불교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지도자수련회, 각종 봉사활동 등을 주관, 지역 불교 현안의 협의, 해결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신행단체의 의식개혁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불교연구 및 출판사업 전개와 특히 불교계 환경보호운동(불교환경대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회장-류진수 상임부회장-임채수

대불청 부산지구



◇이 상 대씨

지난 66년 중구 창신동 대각사에서 발족한 이래 불교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간 제2차 전국청년대회 주관, 지방자치제 세미나 개최, 경주 남산 성역화 운동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펼쳐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둔 올해에는 회원교육 강화, 조직 재정비, 재정자립 도모등 성년불청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회장-이상대 수석부회장-장암

부산불교거사림회



◇서 건 남씨

부산 불교신행단체의 대표적 모임으로 불교교리 강좌와 교리법회, 교양법회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신행단체간의 협찬 및 대·소불사,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72년 영도도서관에서 금강경 강송회를 계기로 창립한 동회는 역대회장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상하는 등 회원들의 신심이 남다르다는 평.

회장-서건남 부회장-엄영진 감사-배종갑

어린이지도자연합회



◇철 오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의 자존성과 자주성을 깨닫게 하고 어린이 지도자의 조직적 결집과 어린이 교화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6년 10월3일 서울 부산 울산 전주 대전 등 5개 지구가 결성되어 부산 영주암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 4일 제19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재-정관스님 회장-철오스님 부회장-운성스님

부산불교문인협회



◇김 문 숙씨

인륜이 무너지고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이 사회에 미력한 문장으로써 불타의 가르침을 훈습케 하려는 동회는 지난 89년 90명의 회원(현재 1백명)으로 발족한 단체. 승·속을 망라하며 부산은 물론 서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기관지 〈실상과 문학〉을 연 3회 발간하고 있으며 신인문학상 시상, 불교문학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회장-김문숙 부회장-최지원 최만조

부산불교인권위원회



◇정 각스님

타 종교에 비해 인권문제이 저조한 불교계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 93년 3월15일 정각스님과 재가불자 1백 5십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된 이후 '우리쌀 지키기 실무소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부산불교 대책위' 등에 참가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땅의 자연을 살리기 위한 불교환경세미나'를 주관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현재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 변호사 8명이 교대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정각스님 사무처장-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성 재 도씨

지난 88년 개원, 불교입문자들을 대상으로 주1회 3개월 과정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초반 뿐만 아니라 수행반(주1회, 평생)도 개설되어 있으며 삼국유사 강의와 전국의 사찰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우리문화 기행'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래사불교도서원에는 불교도서 3천여권이 소장,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원장-성재도

화엄학회



◇양 진 목씨

불경속의 진리를 새롭게 되살려 자신과 사회를 개혁하는 창조적 힘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 지난 80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경원전 강의를 시작한 각성스님으로부터 비롯된 단체이다. 동회는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불자들을 불경공부로 유도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회주-각성스님 회장-양진목

불교교육대 총포교사회



◇이 기 인씨

불법 홍포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회는 93년 7월 정대식씨를 초대회장으로 창립, 그간 포교사의 위상정립에 힘써 왔다.

낙도 어린이 초청법회, 불우이웃돕기 등에도 각별한 활동을 펴온 포교사회는 올 2월에는 보길도 어린이 38명을 초청해 용두산 범어사 해운대 등지를 탐방시켰다. 지난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초빙, 제1차 포교사 연수교육을 주관하기도 했다.

회장-이기인 수석부회장-윤재구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백 봉 도씨

지난 88년 7월 창립한 이후 도심을 달리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왔다. 단순한 운전기사들의 친목모임에서 탈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 봉사활동과 안전운행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 운동에도 나서 주변 앞바다에서 오물수거와 금정산 초입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꽃씨 나눠주기 운동도 펼친 바 있다.

회장-백봉도 상임부회장-고영호

부산여성불자회



◇왕 선 자씨

여성불자들을 능동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이바지케 할 목적으로 지난 94년 1월 창립한 단체. 그동안 교도소에 신문 보내기, 4·8 봉축대법회 자원봉사, 장애인 시설 봉사,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불서읽기 운동 등을 활발히 펼쳐왔다. 지난 달에는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법문과 카메라 등을 보시, 재소자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고문-혜응스님 회장-왕선자 부회장-안성의 김옥자

부산불교산악회



◇안 지 천씨

지난 93년 12월 범어사 보제루에서 1백5십여명의 회원(현재 3백5십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한 이래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명산대찰을 순례하고 정기법회 및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자연보호 경진대회와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광복 50주년 기념 백두산 천지 통일기원법회 및 중국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회장-안지천 부회장-서영득

대불련 부산지부



◇나 기 열씨

지난 65년 창립해 30년의 연륜을 자랑하는 동회는 학생조직에 걸맞게 그간 경봉대선사 대원스님 철웅스님, 화산스님등을 초빙해 불교사상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단체로서 교리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불교 1600년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에는 새내기 맞이 사상강좌 실시와 다음달에 개최될 여름대중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부장-나기열(부산대 전기공학 4년) 부지부장-이승현(동명공전 전기과 2년

〈무순〉

부산불교 환경연합 창립

동체대비 실천…20여 단체 참석

자연환경보호에 앞장설 부산불교환경연합회가 지난2일 오후6시 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가졌다.

혜총(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월강(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스님을 비롯하여 20여 불교계 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월강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환경운동은 바로 우리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정관(범어사 주지) 춘광스님(삼광사 주지) 류진수씨(부산불교신도회장)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정각(자비원 원장) 월강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한 뒤 "불교환경운동으로 동체대비의 사상적 근거를 실천한다"고 결의했다.

부산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법회 봉행

'호국영령 추모 및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 조찬법회'가 현충일인 지난 6일 오전7시 중구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봉행됐다.

정관(범어사 주지), 춘광(삼광사 주지)스님 김기재 부산광역시장 우병택 시의회 의장, 문정수 국회의원등 내외귀빈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춘광스님은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시공을 초월한 살신의 정신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추모사에 갈음했다. 김기재 부산시장은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는 불교연합회를 위시한 부산불자들의 한결같은 조석예불 덕분"이라며 이로써 21세기를 맞는 부산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부산지역 승·재가단체들은 6일 범어사 앞 아파트 건립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범어사 아파트 반대 궐기대회

개혁의지 역행처사 비난…가두시위도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관) 초입에 18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불자들의 건설중지 반대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를 비롯한 선암사 영주암 미타사 백운암 불교그린봉사회등 불자 1천여명은 '환경의 날' 다음날인 지난 6일 범어사 보제루 앞 광장에서 '아파트 건립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당국의 처사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대회는 월강스님(부산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의 자연보호헌장 낭독, 환경보호문 낭독, 환경보호의 당위성, 건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교간 화합통해 가치관 정립"

평화회의 원로모임… '어른' 역할 고취키로

'어른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염려가 종교인 평화회의 원로들을 모이게 했다.

불교의 정각스님(자비원 원장) 원불교 김혜신 교무(공동대표) 천주교 김계춘 신부(공동대표) 개신교 정영문 목사(상임회의 공동대표) 천도교 안관성(고문), 경실련 이종석 박사 부산대 신석중교수등 부산지역의 종교, 학술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지난 2일 자임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회동해 종교간 화합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현대불교 신문 부산지사 창립 을 축하합니다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 선 자
부회장 안 성 의
부회장 김 옥 자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사 상 호
(051) 633-9120

부산불교 산악회
회 장 안 기 천
부회장 서 영 득
부회장 이 순 득
(051) 464-2020

산사 선행회
회 장 이 숙 향
부회장 정 은 혜
재 무 배 여 경
(051) 626-3357

부산불교 운전기사회
회 장 백 봉 도
부회장 고 영 호
(051) 464-2020

불심홍법원
이 사 장 조 정 관
상임이사 하도명화
사무국장 현 익 채
(051) 517-4768

원 복 사
가사, 장삼, 승복일절
사 장 신 용 섭
(051) 504-0413

자유시장번영회
회 장 심 용 보
(051) 633-8785

인삼당 약국
대표약사 박 정 환
(자유시장 3층)
(051) 632-0023

국보셔츠
대 표 정 무 백
(부산진시장 2층)
(051) 632-8162

방송가 단신

광역시장후보 초청토론
BBS 부산 광주

불교 부산방송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지역프로 '반야의 샘'(담당PD진영조.16:10~16:40)을 통해 부산광역시장 후보를 초청하여 종교정책을 들어볼 계획이다.

이에앞서 불교 광주방송은 지난 5,6일 지역프로 '열린 아침 열린 정보'를 통해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선 민자당 김동환 후보와 민주당 송언종 후보를 초청, 종교정책을 들었다.

민자당 김동환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지역 불교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교대학 설립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송언종 후보는 "종교를 국가에서 탄압하고 억압해서는 안된다"며 "우선적으로 종교자유정책을 시정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회지 '불교TV 32'
btn 부산지사 발간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는 부산경남지역 불자들의 등불 역할을 하고있는 후원회지 '불교TV 32'를 3월19일 창간, 6월호까지 통권 4권을 발간했다.

월간 '불교TV 32'는 부산지역 행사안내, 외국 불교기행, 역대선사탐방, 경전공부, btn 초대석, 화제의 인물등 다양한 내용의 잡지형식으로 42쪽을 발행하고 있다.

불교TV의 한 관계자는 "'불교TV 32' 발행으로 현재 공모중인 제2차 불자주식공모에 부산·경남지역이 많은 동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천주씨 소설 <유마경>
불교TV서 드라마 제작

정천주씨의 경전구도소설 '유마경'이 드라마로 제작된다.

지난 12일 작가 오태영(48세)씨가 각색을 끝낸 '소설 유마경'은 불교TV 영상사업부에 의해 오는 26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간 제작돼, 8월초 일반 비디오로 판매될 예정.

불교방송기구개편 단행
기획부통합 심의부 독립

불교방송은 지난 5일 기획심의실을 폐지하고 기획부를 총무국으로 통합 운영하며 심의부를 독립 운영하는 기구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6월8일 btn개국 1백일

영상 포교시대 '주춧돌 놓기'분주

자체 제작프로 78% 상회 … 월 6억적자 불자 주식참여 절실

불교텔레비전이 지난8일 영상포교의 돛을 올린지 1백일을 넘어섰다.

불교영상을 선도하는 방송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은 전반적인 케이블TV시장의 어려움속에도 타방송에 비해 월등히 높은 78.9%의 자체제작률과 64시간 주간방송으로 불교사상에 기반한 전문적인 프로 개발과 기술역량강화를 축적시키고 있다.

컨버터의 부족으로 시청가구가 둔화된 추세에도 btn은 케이블 시설이 불가능한 1백41곳의 사찰에 위성수신안테나를 설치했다.

월 6억2천만원의 적자로 재정적우려가 있지만 CATV사업이 21세기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 불교영상소프트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식갖기 운동'에 불자들의 동참이 요청되고 있다. 영상포교 1백일, btn의 이모저모를 살피면서 내일을 전망해 본다.



◇불교텔레비전의 영상포교 백일을 진단하는 특별좌담이 지난 8일 열렸다.

인기 프로

◇자비의 천수천안 자비사상이 실천되는 과정이 감동적이어서 불자들이 수희동참하고 있다. 얼마전에는익명의 보살이 정기적금을 해약했다며 3천만원을 기탁하는등 자비의 물결이 일고있다.

◇날마다 좋은 날 담당PD가 3명이나되는 아침 종합정보 프로그램. 특히 선재스님의 불가요리는 보살들에게 인기다.

◇퀴즈특급 이 뭐꼬? 퀴즈를 통해 재미와 교리를 배우고, 사찰간의 불꽃튀는 대결로 신도, 스님 구별없이 시선을 끌고있다.

◇TV신행상담 진옥스님(여수 석천사)이 불자들의 고민을 듣고 불교적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준다.

이밖에도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불교문화계소식을 알 수 있는 문화라인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청 소감

산중사찰에서는 교계소식을 신속하게 영상으로 접할 수 있고 도심에서는 산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큰 호응.

▲운공스님(전남 화순 운주사)외화의 경우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원음이면 더욱 좋겠다.

▲청정월보살(서울 망원2동) btn의 방영시간이 좀더 늘어나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프로가 가미됐으면 한다.

▲임혜영학생(숙명여대 전산과) TV부처님과 만나는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1백일을 짓점으로 프로진행의 매끄러움이 이뤄졌으면 한다.

영상사업부

영상사업부는 8명의 직원으로 외주, 내주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5월 한달간 1억2천여만원의 흑자를 올려 btn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및 CF제작완료 판매 35건과 '한국의 불상' '사원 건축' 등 13개 프로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MBC에서 주문받은 '일본속의 한국문화'와 교통관광TV의 프로그램등을 제작하여 영상사업부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백일진단 특별대담

홍보부족·전송망 차질 아쉬움
젊은 불교 일구기 원력다해야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8일 영상포교 백일을 진단하는 특별대담을 방송했다.

홍사성 제작국장의 진행으로 성수스님(조계종 포교국장),박광서교수(서강대),김재일회장(보리방송모니터회) 등이 출연했다.

박광서교수는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며 "전송망과 수신장치의 공급차질에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이어 김재일회장은 "질적인 노력이 방송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만큼 젊은 불교를 일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스님은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할 유선TV불사에 참여함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각 사찰에서 '불자 주식갖기운동'을 펼쳐 주식청약을 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사성국장은 "불교TV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제작률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불자들의 원력을 수렴하여 영상포교의 신기원을 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주·대구 BBS 지방국 본격 추진
사무실 개설·인력구성 등 구체적 방향 수립

불교방송의 지방국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종하스님)가 지난 13일 이사장및 사장 브리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오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보고와 함께 구체적인 실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충북 불교방송추진위(위원장 채혼관)도 청주시 가경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무이사 지원스님(전주송광사 주지)등 2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추진위는 12일 오후5시 추진위 이사회를 통해 인력구성등 구체적 방향을 수립하고 6월경 축하대법회 개최등 세부일정을 마련한다.

또 대구지역은 당초 구체적인 불교방송 설립추진위 조직이 결성되지 못했던 관계로 추진세력이 없어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11일 능인고에서 열리는 경북지역 조계종4개교구본·말사 주지 회의에서 대구불교방송 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역은 추진의사를 밝힌 진각종 등 각 종단과 각 교구 본사 사찰의 합의이 필요한 현실이라는게 관계지역인사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나 최근 서울본사 추진위 고위관계자는 "조계종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btn 얼굴 고은희 아나운서

자신감 넘치는 멘트 "매혹"



btn의 아침을 열어가는 신선함과 따뜻함을 주는 여성 아나운서 고은희씨(31세).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프로 근성이 강하며 자기세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btn의 표상이다. 아나운서 경력 8년의 베테랑으로 KBS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고은희씨는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인사하는데서 불자의 도리를 느낀다"고 한다.

'날마다 좋은 날'을 생방송하며 출연자들의 불교에 대한 열의에서 흐르는 신심이 새록새록 자신에게도 돋아나기쁘지만 직업특성상 바른 교리를 들어가는 용어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요즘 오피스텔 생활을 청산하고 흙과 풀이 있는 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고은희씨는 주위 동료들에게도 포근함을 주는 btn의 얼굴이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엄용수의 불교인연 이야기

김병조의 스타쇼(14일 11:10~12:00)코메디언 엄용수씨의 불교인연 이야기와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청저하게 살려는 그의 인생관을 소개한다.

사후세계 궁금증 풀어

TV 신행상담(15일 11:10~12:00) 사람이 죽은뒤에는 어떻게 될까? 과연 극락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정말 있는 것일까?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육명심씨의 사진인생

나의 삶 나의 불교(17일 11:10~12:00)평생을 불교와 함께 하면서 장승, 무속등을 소재로 사십여년 동안 사진 작업을 해온 사진작가 육명심씨가 출연한다.

8년간 경전 연구 집필

삼장법사 현장(17일 12:30~13:20) 현장스님은 나란타사에 8년간 머물면서 회종론이란 책도 쓴다. 각국을 돌아다니며 바라문과도 계속 변론을 벌이고….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8.7MHz(광주)

박경주선생의 동화나라

몰비나동산(13일 16:40~17:00) 구연동화작가 박경주선생의 동화나라가 펼쳐진다.

숭유억불의 배경 찾아

바로보는 불교역사(13,14일 14:10~15:00)숭유억불은 어디에서 생겼나,무불사대라 불리우는 조선시대 세종은 왜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는지에 대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찾아간다.

중국어권 영화음악 정보

영화음악실(14일 22:05~13:00)권경미씨가 출연하여 중국어권 영화음악에 대한 최신정보를 들려준다.

지자제 환경법안 다뤄

환경레포트(17일 14:10~15:00)지자제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있는 환경법안들을 다뤄본다.

관음사의 심청설화 들어

불교설화(18일 16:05~16:10)심청전의 원창인 전남 곡성 관음사의 연기설화를 들어본다.

